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1 **3/4**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6
FAX : 2275-8506 KDTA
e-mail: kdfa@chollian.net
홈페이지: www.kdfa.or.kr

어린이 권리 선언문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떤데, 남자인지 여자인데, 영어를 쓰는지 한국어를 쓰는지 서울말을 쓰는지 사투리를 쓰는지, 무슨 종교를 믿는지, 또한 장애인인지 아닌지,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비닐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창간 80호 2001년 03/04월호

창간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용경·이기원/
 뒤편이 이경녀, 김희정/펴낸날 2001년 3월 15일

2	권두언	달라지는 가족문화와 보육의 가능	최영신
4	보육정책1	유아교육법에 대한 한국보육교사회 입장	편집부
7	보육정책2	임면보고 및 보육교사 경력관리에 대한 한국보육교사회의 입장	편집부
10	보육정책3	2001년도 보육지침 안내	황미혜
19	2001 한국보육교사회	2001년 한국보육교사회 사업 방향과 계획	편집부
22	2001 한국보육교사회	신임사무장의 인사말	편집부
27	교육논단	전래동요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서은희
35	현장교육1	플라스틱 장난감을 자연물 장난감으로 바꿔주세요.	임미화
37	현장교육2	지원이의 자위행동	김정현, 김영수
40	현장연구	발도르프모임을 통한 현장연구	문현주
47	현장소식1	2001년 정기 총회를 다녀와서	임정숙
49	현장소식2	가깝게 느껴진 총회	최현희
50	현장소식3	이제야 저를 알아 주시는군요.	고정미
52	인물탐방기1	변함없는 로사생의 아름다움	김정자
55	인물탐방기2	여전히 청춘이다.	박인혜
59	어린이와 건강	육아상담 Q&A	편집부
62	어린이와 안전	어린이 화재안전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정선아
77	좋은 그림책 소개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진실
79	영아들과의 하루	자성의 반란	이정미
80	아이들의 세상인들기	평동어린이집 이야기	윤금주
81	육아일기 1	다시 일을 시작하며...	김연숙
83	육아일기 2	백수엄마를 자칭하며	전경숙
85	세상읽기	왜곡의 역사/진실의 역사	박상희
87	목소리	놀자! 놀자! 놀자! 보육교사 수다방	편집부
93	일렁난		편집부
96	보육계풍향		편집부
99	소식과 소식		편집부
103	편집부에서		편집부

달라지는 가족문화와 보육의 기능

최영신 · 중앙대 강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육제도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핵가족화의 진행과 더불어 가족만으로 아동의 보호가 어려워지고, 그 어려움의 정도가 사회적 재생산을 위협하게 되자 국가 및 사회가 가족을 대신하여 부모가 일하는 동안 그 아동들을 보호하게 된 것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요즘은 여기에 출생율의 저하, 다양한 가족 및 생활양식의 출현, 자녀양육력 저하에 따른 사회적 양육의 필요성이 추가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출생율 저하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권의식의 향상 등 여러 측면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생율의 저하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사회적 재생산, 경제전반 및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어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즉 어린이의 수의 감소는 형제, 자매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감소, 또래집단경험의 감소에 따른 어린이들의 인간관계, 사회성 발달의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친다. 심하게는 아기와 접할 기회가 없이 성장하여 출산 후 처음으로 아기를 접하고 육아에 당황하기도 하고 육아를 아주 어려운 일로 생각하여 육아불안, 육아노이로제에 걸리는 젊은 엄마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한편으로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하고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의 증가 속에서 자녀들에게 자신들을 맞추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생활을 관철하는 부모들의 증가, 손자·손녀들의 양육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노후생활을 즐기려 하는 조부모의 증가,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비혼의 모자세대, Dinks(맞벌이 부부로 자녀를 갖지 않는 가족), 사실혼 가족, 편부·모의 증가,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놓여진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출현은 가족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어린이의 양육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보육제도는 모든 가족성원의 생활주기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제도의 모색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보육제도의 근간은 아동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가족의 요구, 생활주기에 맞는 보육서비스가 부모의 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어린이들을 맡겨버리는 아동의 수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어린이의 보육은 보호, 양육, 교육의 3가지로 구성된다. "보호"란 어린이가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내용을 보호하는 것, 즉 의·식·주를 제공하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되고 안전한 상황에 있도록 배려하고, 심신의 조화를 이루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양육"이

란 이러한 보호를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발달, 성장을 촉진시키는 활동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형성, 인간관계, 보건, 영양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이란 개개의 어린이들의 개성을 파악하고, 심신의 적응이나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가치관이나 인간성에 관련된 방향성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육"이란 개개의 어린이의 발달을 기본으로 한 부모, 친척, 사회에 의한 보호+양육+교육의 총체라 할 수 있으며, "보육이 필요한 상황"이란 개개의 어린이들의 생활, 발달상 필요 불가결한 주관적, 객관적 보육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즉 "보육"의 3요소인 "보호", "양육",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린이의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이러한 "보호", "양육", "교육"을 통한 아동의 생활, 성장, 발달을 보장하는 것으로 모든 아동들에게는 이러한 보육을 받을 권리가 주어져서,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와 어린이가 성장, 양육하는 환경인 가족 및 가정을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 중의 하나를 수행하는 것이 보육제도의 충실이다. 또한 보육제도의 충실은 이전의 취업여성 및 어린이에 대한 대책에서 나아가 다양한 가족, 가족기능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을 지원에 대한 공적인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출생율은 더욱 감소될 것이며, 사회적 재생산조차 존립의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보육시설은 아동의 생활을 보장하고 가정의 역할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도 그 역할과 기능이 다양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노인복지시설은 시설의 지나친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 대한 반성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노인클럽(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보내는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어린이들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정처럼 어린이들이 긴장을 풀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일부 보육시설들은 어린이들의 여가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한 장소를 원하는 어린이들이 혼자 있고 싶을 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방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지나치게 프로그램위주의 보육시설 운영이 아닌 가정의 역할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아동들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출현 중 증가하는 편모의 대책으로써 남성보육교사를 채용하여 보육시설이 가정의 보완으로써 여성, 엄마의 역할만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아버지의 역할도 보완하는 시설로써의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부모의 자질이 없는 부모,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부모, 육아부담으로 인해 육아노이로제 및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전업주부 및 가족들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시설로써의 기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다른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보육시설에 기대되어 지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과 역할이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가족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많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밝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유아교육법에 대한 한국보육교사회 입장

지난 1월 교육인적자원부(구 교육부)는 유아학교체제의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아교육의 정상화와 공교육의 실현을 주장하며 발표된 유아교육법안 제정 논의는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각자 다양한 경로로 발전해온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몇 년동안 계속되어 온 유아교육법 제정 논의에 대해 본회의 입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해 왔으며 이제 다시 한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유아교육법의 내용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의 문제에 앞서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사회의 시민을 교육하고 키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각계의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그리고 양육의 주체인 부모가 서로 협력하여 다양한 논의가 민주적이고 열린 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서로를 영유아보육의 공동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5세아 무상보육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3월 임시국회에 제출 예정인 유아교육법에서는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기부터 아동의 개별 가정환경의 차이로 인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인적 자원 개발로서 유치원 교육을 고민, 전개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육아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5세아를 위한 모든 형태의 지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헌법 제11조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보육시설을 다니는 무상보육의 혜택은 차별 없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보육시설 일원화 반대

현재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유·보 일원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유·보 일원화는 아동을 0-3세 미만, 3-7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각각 전담하자는 것입니다. 연령별 유아교육기관의 단일화를 통해 소관부처의 인적·물적 자원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가 인적자원 관리체제의 기본틀을 유아기에서부터 체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그러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목적, 역할은 다르며, 그에 따른 운영방식이나 시설의 환경 역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유치원이 취학 전 연령의 아이들에게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활동을 주로 제공해 왔다면 어린이집은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가정을 대신하여 건강, 영양, 안전과 연령별 발달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어린이집의 시설이 조리실, 낮잠 등이 가능한 휴식공간 등을 모두 포함하며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유치원은 교실이라는 교육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일제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는 아이들의 리듬에 맞추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진행되며 오후시간은 다양한 놀이 활동과 간식시간, 낮잠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형식적 통합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처한 개별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로 문제를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복지부의 성의 있고 일관된 행정적 관리와 지원 및 긴밀한 공조가 뒷받침된다면 오히려 기존 유아기관들이 그 목적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 운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아학교 체제로의 학제화 반대

유아교육법안의 내용은 현재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라는 명칭의 사용은 초등학교 취학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교육기관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 유아교육의 혜택이 모든 아동에게 돌아가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가정의 요구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유아학교가 아닌 기관에 다니는 아동들은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과 불안감을 가질 것입니다.

만약 유치원을 학제에 편입하기 위한 의도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유아교육, 보육기관을 학제화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교육일정과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을 요구받는다라는 것이며 이 결과 다양한 교육적 시도들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학교가 초등학교 입학전의 준비단계로 인식된다면 결국 유아학교는 유아기에 필요한 전인적인 발달에 맞는 교육보다 초등학교 수업을 받는데 필요한 한글, 숫자, 영어 등 인지교육 중심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음악, 미술 등 특기교육까지 유아학교 일과 시간내에서 모두 해결하겠다는 것은 부모들의 또 다른 조기교육열풍을 무원칙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영유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환경, 균형 있는 영양, 바람직한 생활습관의 형성과 발달수준에 맞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놀이와 교육활동입니다.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굳이 학교라는 제도의 틀을 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아가관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중 보호자 한쪽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아동이 방치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기혼여성의 취업률도 증가하고 있어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율 증가로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도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의 근로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아가관의 필요성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아학교로 단일화된 교육기관으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담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의 다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양한 운영방식과 그 특성별 교육이 진행되는 유아가관들이 오히려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한 여러 단체들의 의견이나 움직임들을 보고 혹자들은 자기들의 잇속만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혹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올바르게 바라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서있는 곳이 유치원이든 보육시설이든 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유아교육의 공공교육화는 일원화를 통한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는 효율성이나 편의주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유난히 사립의존도가 높은 우리 유아교육계의 현실에 대한 분석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모색,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의 열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되었을 때 진정한 유아교육의 공공교육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임면보고 및 보육교사 경력관리에 대한 한국보육교사회의 입장

복지부는 2001년 보육사업안내에서 보육교사의 임면보고와 증명서 발급업무를 한국보육시설연합회로 이관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육교사자격제도와 더불어 임면보고를 포함한 보육교사의 관리문제는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의 질에 있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라는 민간법인에서 임면보고와 경력관리를 담당한다는 것은 유치원교사가 교육청에서 임면보고와 경력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보육교사들은 상대적으로 공신력과 사회적 인식의 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면보고와 경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 1 시설에서 무자격 교사를 채용할 위험이 있고
(이는 바로 보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 2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관리소홀이 우려되며
- 3 교사의 경력관리가 전적으로 시설장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어
(한보련의 의사결정조직은 시설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황임)
이를 악용해 교사의 처우나 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고
- 4 경력증명서 공신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짐은 물론,
- 5 보육교사들의 일에 대한 의욕과 자부심이 현저히 저하될 것입니다.
- 6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시설종사자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실제로 99년도 임면보고 조항이 폐지되고 지침으로만 구청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도록 행정지도 했던 시기부터 나타났던 문제들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상담실을 통해 들어온 상담문의입니다.

상담 사례 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올해 5월에 결혼으로 인해 어린이집 근무하던중 퇴사하였습니다.(출퇴근거리로 인해) 그런데 그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어린이집을 개원하던 중이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받으려하던중 근무하던 종사자들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원장선생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 저에게 요구를 하더군요. 제 자격인정서를 첨부해 제출하는데 도움을 달라구요. 반강제적으로..

상담 사례 2)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어린이집에서 1년넘게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근대 1년 넘게 근무하면서 경력이 인정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경력이 인정이 됐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여? 참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 사례 3)

저는 유치원경력이 4년된 교사입니다. 제가 처음 취업한 어린이집에서 원장님께서 임용보고를 늦게 하셔서 저는 3월에 근무하였는데 10월 30일로 임용보고 하셔서 저의 경력이 8개월이나 손해보았습니다. 제가 유치원으로 옮기려고 경력증명서를 구청에 가서 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손해본 8개월을 보상받을 수 없는 지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에서 1년 유치원에서 3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가면 유치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는지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똑같은 교사이고 경력증명서를 떼면 모든 근무한 것이 나오는 데 인정 받을 수가 있는 지 꼭 답장주세요.

이처럼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임면보고는 단순히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4만여 보육교사들의 권익과 보육서비스의 질의 문제입니다.

복지부는 2001년 보육사업안내에서 「종사자 임면보고 사항은 법적 근거 마련시까지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 실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선교사들의 불편과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마련,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법규의 제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그동안 경력증명 등을 시설에서 발급할 때 해당교사의 불이익이나 무자격자의 고용 등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임면보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임면보고가 법제도에 반영되도록 관련조항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1. 보육교사의 경력관리를 위해 채용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시설과 보육교사가 1부씩 가지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요구합니다.
1. 경력이나 자격에 있어 허위기재나 관리소홀이 드러날 경우 경고조치 등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1. 보육교사가 임면보고와 관련하여 시설의 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을 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단위보육위원회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2001년도 보육지침 안내

정리/황미혜 · 본회 보육정책위원

지난 2월에 발표된 2001년도 보육지침은 단순히 내용상의 변화만을 따진다면 그리 많이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나 퇴직금 적립 등 몇몇 항목은 일선 보육교사들의 이해와 직접적인 연관을 지닌 것이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2001년도 보육지침에 대한 안내는 지침에 소개된 2001년 보육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과 2001년 보육사업 예산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앞서 거론한 종사자 자격관리와 퇴직금, 기타 보충연금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짧게나마 정리해보고자 한다.

2001년 보육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00년도	2001년도	비 고
가. 보육료 지원			
1) 국고보조단가			
○ 2세미만	○ 219,000원	○ 225,000원	3% 인상
○ 2세	○ 181,000원	○ 186,000원	
○ 3세이상	○ 112,000원	○ 115,000원	
2) 기타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소득기준> ○ 3인 이하: 95만원 ○ 4인: 105만원 ○ 5인 이상: 115만원 <재산기준> 3,200만원	<소득기준> ○ 2000년과 동일 <재산기준> ○ 3인 이하: 3,500만원 ○ 4인: 3,700만원 ○ 5인 이상: 4,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준 및 실태조사 반영
3) 보육료 초과수납 폐지	시설장이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초과수납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00분의 150까지 수납 가능	<폐지>	상위법 위반

제 목	2000년도	2001년도	비 고
4)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지역 확대	읍·면 지역의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지역 포함(도·농 복합형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	도시지역의 농어촌 보육아동 지원
나. 보육시설 설치			
1) 국·공립보육시설 시설장 채용자격 제한	<신 설>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시설장(국·공립시설 제외)은 채용불가 ※ 단 퇴직후 1년이 경과한 자는 가능	본연의 업무소홀 등 방지
2) 보육시설 명칭사용 제한	<신 설>	보육시설 명칭에 00미술·00영어 어린이집 등 표기 불가	학원·유치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우려 배제
3) 보육시설 신고 수리 시 제출서류 보완	<신 설>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	보육시설의 안전 제고
다. 보육시설 운영			
1) 건강검진	보육아동 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검사비용 부담자기준제시	실질적인 건강관리 도모
2) 종사자 건강관리 및 채용금지	<신 설>	B형간염보균자 중 비활동성보균자는 채용 가능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3) 종사자 임면 보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 관리	법령 미근거로 한국보육시설연합회로 이관
4) 인사기록카드	<신 설>	인사기록카드 양식 명시	인사기록카드 양식을 지정하여 종사자 관리에 효율성을 기함
5) 보육시설 방학	여름 및 겨울에 7일의 범위 내에서 방학 실시	여름 및 겨울에 7일의 범위 내에서 종사자 정기휴가 실시	보육의 기본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방학제를 종사자휴가제로 전환
6) 신규로 설치된 인건비 지원시설 인건비 미지원	<신 설>	2001. 3. 1 이후 신규로 설치된 인건비 지원시설의 인건비 지원제한 (예산확보시까지)	인건비 예산 부족 (2002년도 예산 확보 시 지원)

제 목	2000년도	2001년도	비 고
7) 폐지·휴지시 설치비 반납	<신 설>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보육시설이 폐지·휴지될 때는 지원된 설치비 반납기준 제시	시설설치비 반납기준이 없어 폐·휴지시 민원 발생 해소
8) 퇴직금 적립현황 보고 폐지	퇴직금 적립현황 보고	<폐 지>	규제완화
바. 보육교사교육원 운영			
1) 보육교사교육생 실습기관 지정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실습기관 지정	보육교사교육원에서 한국보육시설연합회(시·도, 시·군·구)에 의뢰하여 보육실습기관 지정	우수한 보육시설을 선정·배치하여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제고
2) 실습지도교사 자격 강화	시설장 또는 1급 보육교사	시설장(1급보육교사 이상 자격 소유자) 또는 1급보육교사	보육실습지도교사 자격을 강화하여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사. 기타			
1)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소개	<신 설>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보육시설 현황 게재	지자체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홍보
2) 보육관련 행정기관 연락처 게재	<신 설>	복지부, 시·도, 시·군·구 보육관련 행정기관 연락처 게재	보육관련 행정기관 연락체계 구축

2001년 보육사업 예산

구 분	2000 예산(A)	2001 예산(B)	증(△)감 (B-A)	%	주 요 내 역
계	145,959	170,563	24,604	16.9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88,778	97,878	9,100	10.3	○ 14,726명→15,370명 - 보수수준: 5% 증가
저소득층보육료	44,827	60,000	15,173	33.8	○ 128,140명→146,878명 (법정 37,078, 기타 109,779) - 지원단가 전년대비 3%인상
민간시설교재 교구비	3,363	3,363	-	-	○ 지원개소: 7,878개소 - 어린이집: 700천원~1,200천원 - 가정보육시설: 200천원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569	569	-	-	○ 790개소 - 120→120천원/개소·월
보육정보센터 운영	330	330	-	-	○ 6개소 - 110→110백만원/개소·년
보육시설기능보강	1,202	1,220	18	1.5	○ 신축 9개소, 중·개축비 2개소 개보수 35개소, 장비비 75개소
- 신축	765	700	-	△8.5	
- 중·개축비	-	84	-	100	
- 개·보수	377	376	-	-	
- 장비비	60	60	-	-	
5세아무상보육	5,941	6,254	313	5.3	○ 농어촌저소득층자녀 만5세아 - 14,700명→15,474명
민간보조	713	713	-	-	
- 청사어린이집	546	546	-	-	○ 과원, 대전청사어린이집
- 한국보육 시설연합회	167	167	-	-	
행정경비	236	236	-	-	○ 보육프로그램개발: 119백만원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구 분		지 원 내 용
국·공립 및 법인	40인 이상 시설	○ 원장: 인건비 100% ○ 보육교사: 인건비 50% ○ 추가지원: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월/개소당 120천원
	40인 미만 시설	○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 보육교사: 1인 인건비 50% ○ 추가지원 - 장애아·영아를 5인이상 보육하는 경우 보육교사 1명 인건비 100% 지원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 원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 100% ○ 추가지원 - 반편성의 장애유형에 따라 치료사 2명까지 - 취사부 1명: 100% - 차량운영비: 월/개소당 120천원
	기 타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장애아만을 편성운영하는 경우 장애아만 운영에 소요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100% 지원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
	○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 원장: 인건비 100%(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시) ○ 보육교사: 인건비 50%
○ 학교·종교시설 부설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 보육교사 최대3인까지 지원하되 소요현원의 1/2에 대한 월 보수총액의 100%
○ 민간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 교재교구비: 200~1,000천원/개소당·년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 보육교사 최대3인까지 지원(100%) ○ 교재교구비: 1,200천원/개소당·년

※ 지원율은 국고(서울: 15%, 지방: 50%), 지방비(서울: 75%, 지방: 40%), 지방담(10%)을 포함한다

아동지원

이번 지침에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과는 별도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당장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한해 그 재산이 당해 연도 재산기준 150%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그 영유아를 기타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IMF 경제위기 이후 실질적 생계위기에 놓인 가정이 증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구를 복지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의 거주지와 입소시설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아동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서도 아동별 지원 예산이 있는 경우 아동 주소지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관리

보육시설에서 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아동의 건강검진은 신체(신장, 체중), 구강, 소변검사를 필수검사항목으로 하고 소요비용은 보호자 부담 원칙을 명시하여, 건강검진시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민원의 여지를 없애고 아동 건강을 보다 통일된 체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사자의 경우, 년 1회 이상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으로 판명된 자는 완치시까지 휴직 등 조치를 취해 영유아보육을 할 수 없다. 단, B형 간염보균자 중 비활동성 보균자는 제외되며, 대신 6월마다 검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사자 자격관리

행정규제의 완화의 차원에서 종사자 임면보고가 복지부의 행정업무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보육교사들의 자격과 경력관리에 많은 허점들이 존재함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목소리를 포용하여 복지부에서는 다시 일선 관할행정단위에서 보육교사 임면보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으며, 규제철폐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아 지금은 그 지침이 철회된 상태다.

복지부는 개별 시설에서 종사자 자격관리를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단 방지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시까지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 종사자 임면보고와 자격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시설장들이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 보육시설연합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별 단위 보육시설연합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역별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현황을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눈에 띄는 것은 종사자 임면 후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보육교사가 교체되는 동안의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시설내에서의 또 다른 아동방치나 남아있는 보육교사들에게 퇴직교사의 업무전가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육시설 시설장(즉, 종사자 임면권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로 자격관리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종종 발생하는 종사자 자격관리 관련 분쟁에서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가라는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산재보험 가입

작년까지 5인 이상 보육시설에 한해 가입하도록 권고하였던 산재보험을 올해부터는 시설 규모와는 관계없이 모든 시설이 의무가입하고, 연간보험료는 종사자 임금총액의 6/1000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보육시설종사자 정기휴가제

그간 실제로 민간에서 실행하고 있던 방학제를 작년에 도입하여 국공립시설에까지 방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다시 보육시설종사자 정기휴가제로 전환, 실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여름 및 겨울에 각각 7일의 범위 내에서 정기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사자 휴가는 순번제로 실시하고, 급여는 정상지급하며, 휴가일수는 연가일수에 포함된다.

퇴직금 적립현황 보고의무 폐지

보육시설 종사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을 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퇴직시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퇴직적립금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작년까지 퇴직적립금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던 사항을 삭제하여, 시설운영자가 별도의 적립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게 되었다.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도 종사자 퇴직시 퇴직금을 지출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윤 발생이 불가능한 보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퇴직금 적립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지방비확보 추가 지원

장애아, 영아전담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인건비, 각종 치료사 인건비, 장애아보육 특수시

설 설치비 및 각종 장비비 등을 지방비로 확보하여 최대한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특수보육 활성화에 대한 미약하나마 나름의 의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도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현황

각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보육관련 특별사업들을 소개함으로써, 지역별 사업 구상에 대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가 보육료 전액 면제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지원과 두자녀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0세아 전담시설 간호사 인건비, 비상근교사 배치 인건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 방과후교실 운영, 설치비 및 보육교사 중식비 등의 지원계획을 밝히고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국공립시설 뿐 아니라 민간, 가정보육시설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국공립시설과 민간, 가정시설간 종사자들의 격차를 좁히도록 하고 있다.

특이하거나 중요한 지원사업을 펼치는 지자체를 몇 군데 소개하자면, 경기도 수원시가 보육시설 아동인형극 공연 및 종사자 교육, 동화표현놀이 교육, 보육시설 옛노래 놀이교육, 보육정보센터 무료대여 도서구입 등 아동교육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통일된 성격의 지원을 펴고 있다. 경기도 화성군은 유일하게 군내 보육시설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장애아 통합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 의식전환교육과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제시하였다.

경도차이는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두자녀 보육료 지원과 보육료지원대상 아동의 차액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보육교사 연수비와 인건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책정하고 있다. 특히, 교사인건비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에까지 적용하는 곳이 많으며, 영아나 장애아, 24시간보육 등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시설 교사들에 대한 특별수당 지원계획도 많이 발견된다.

특수보육담당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함께 장애아전담재활프로그램 운영(서귀포시)이나 특수보육실시 시설 설치 및 지원, 또 앞서 거론한 충청남도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수보육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보육시설 인력은행 운영(대전), 일반가정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경기도 부천), 보육교사 정보화 교육 실시(경기도 가평군), 실직자녀 보육료 지원(제주시) 등과 같이 다양한 지원계획들이 각 지자체별로 마련되어 있고, 경상남도는 특이하게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라는 명목의 지원계획을 세워놓기도 했다.

이렇듯 각 지역별 특성이나 사업방향에 맞는 보육사업 지원계획들을 마련하고 실시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고 다양한 사업경험의 교류, 국공립과 민간간의 종사자들의 격차 완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육사업 특별시책에서 어린이집 재물잔치나 체육대회, 보육인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지원이 전체의 1/3이상

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지속적이고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 구상으로 이 후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보육관련 행정기관 연락처 게재

올해 보육지침에서 신설된 항목으로 복지부와 시, 도, 시, 군구 보육관련 행정기관의 연락처를 게재하여 보육시설과 일선 행정기관간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시 정리해보면, 올해 보육지침은 지침내용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지침서의 구성과 설명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앞에서도 소개하였지만 지자체별 특별시책이나 일선 행정기관의 연락처 게재 등을 통해 지자체별로 보육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보육교사를 역시 지역별로 가능한 예산지원사업들을 요구하고 획득하는 것이 보다 가능해졌음을 인식할 수 있다. 둘째 건강검진과 같이 민원발생이 가능한 사항이나 종사자 인건비 중 사회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 고시(국민건강보험료:월보수액의 1.7%, 국민연금 부담금: 월보수액의 4.5%, 퇴직적립금: 월보수액의 1/12 등)하는 등 보다 세심한 고민의 흔적과 그로 인해 좀더 상세한 설명이 보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육교사 배치기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영아시설의 경우 2세미만 영아 5인당 1인, 5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사 1인이 9명까지 보육가능하다는 해석을 낳게 되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나, 보육교사 자격관리에서의 객관성의 문제, 퇴직금 적립현황 보고의무 삭제와 같은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변화들을 수용하고 또 내용에 따라서 시정도 요구하는 일선 보육현장의 목소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2001 한국보육교사회

2001년 한국보육교사회 사업 방향과 계획

I. 2001년 사업방향

1. 조직의 협약 체계 및 운영전반에 대한 총화 과정 마련하여 재정립하여 이를 통해 조직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지부/지회간의 활동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부/지회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 중간간부의 실무력 훈련을 실시한다.

본회는 조직전환을 한 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다. 이 과정 속에서 회원 개개인까지 공유하는 조직 전망 논의과정이 충분치 못했음을 인식하여 지난해 1년간 이사회와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를 통해 진행된 조직전망 관련 논의를 일반회원까지 확대하여 총화하는 과정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조직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부/지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간 간부 훈련과 조직사업 담당자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지부/지회 활동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본회 홈페이지에 회원 방과 지부/지회 소식란을 마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지부별 사업 교류를 활성화하며 회원들의 의견 개진 등을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2.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운동과 활동을 전개하여 회원과 중간 간부들에게 대한일상적 정책교육을 강화하여 정책력을 높인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활동은 오랫동안 보육정책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보육정책과 법 개정의 문제는 몇몇 사람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담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라는 이념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하나이며 모든 보육교사와 함께 요구해야 할 사안이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성과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연구해 온 성과를 받아 올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해 일선 보육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법을 개발하고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보육교사들에게 정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보육교사의 힘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보육정책과 제도의 문제가 현장의 보육사업을 실질적으로 담아내는 틀이라고 볼 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인 회원의 정책력 강화는 우리 회의 정책력 강화를 위한 기초로써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해 지부별 대응마련과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부 간부들의 실질적인 정책력을 높이고 정책사업 수행방식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과정을 통해 개발된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로 보급하여 교육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다.

지난해 본회에서는 우리의 현실과 정서에 맞는 보육내용으로 옛이야기, 옛놀이, 옛노래 등에 대해 교육연구팀을 중심으로 연구해 오고 있으며 권역별 여름연수와 교육센터 가을 강좌를 통해 일부 내용을 외화시킨 바 있다. 이에 올해 교육사업의 중점은 지난해에 이어 전통문화관련 개발된 보육프로그램을 정리하여 보급하며, 지부별로 전통문화 관련 다양한 소모임 구성,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마련, 교사 재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부/지회에서의 교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담당자 연석회의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사업 내용

1. 중앙 지부, 지회 등 조직의 철학 체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총화 과정 마련하여 재정립하여 이를 통해 조직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또한 지부/지회간의 활동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부/지회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 중근로부의 실무훈련, 지부 방문 교육 등을 실시한다.

- ▶ 총회를 통한 조직 철학 재정립에 대한 총화과정 마련
- ▶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의 중장기 계획 수립
- ▶ 연1회 이상 지부 순회 방문 교육 실시
- ▶ 중간간부 실무 강화 훈련 실시
- ▶ 조직사업 담당자 연석회의
- ▶ 확대간부 연석회의를 통한 지부/지회 사업계획 공유
-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나눔 사업 - 회원방, 지부 소식란 신설

2.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운동과 활동을 전개하여 회원과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일상적 정책교육을 강화하여 정책력을 높인다.

- ▶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보육교사들과 공유하고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 ▶ <우리네 아이들>을 통해 보육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지부에서 회원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홈페이지 내에 정책이슈와 과제를 일상적으로 게시하고 정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지부 간부를 위한 정책교육 및 정책사업 수행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 2회 실시한다.
- ▶ 보육교사 근무환경과 요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육정보연구소와 함께 수행한다. (프로젝트 확정시 시행)

3. 연구과정을 통해 개발된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로 보급하여 교육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다.

- ▶ 전통교육연구팀 (우리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육프로그램 정리 및 교사재교육 활동)
- ▶ [전통문화보육프로그램] 정리
- ▶ 교육센터 주관하의 다양한 강좌 개설
- ▶ 전국 교육사업 담당자 연석회의 연2회 이상 실시를 통한 지부/지회 지원
- ▶ 지부별 연구소모임 지원사업 (아동미술, 우리소리, 통일교육 등의 주제로 지부별 소모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권역별 여름연수
- ▶ 현장연구 사전 지원
- ▶ 현장의 교육 내용 수집, 홈페이지 등 매체를 통한 교류의 장 마련

4. 일상사업

- ▶ 상담사업 -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실 운영과 상담사업의 장기 계획을 준비
- ▶ 홈페이지를 이용한 자율적인 보육교사 구직구인 연계사업 실시
- ▶ [우리네 아이들] 발간 사업 및 각종 자료집 발간
- ▶ 회원확대 사업

5. 기타 사업

- ▶ 장애인 통합보육에 대한 교육 강좌 및 통합캠프 실시
- ▶ [건강한 보육환경실천을 위한 연대모임] 연대 활동
- ▶ 재정위원회를 통한 재정 사업

아름다운 희망 한국보육교사회를 믿습니다.

- 신임지부장의 인사글



김진숙 · 서울지부장

2001년의 시작은 눈으로 시작하네요.
눈이 많이 오면 그해는 풍년이라지요?
한국보육교사회도 풍성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저는 이런 보육교사회를 희망해 봅니다.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전화해서 모두 쏟아내어 속 시원해질 수 있는 곳, 아이들과 놀이를 하다가 기발한 걸 하게되면 나 이런 거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곳, 좋은 강좌가 생기면 우리 이거 배우러가자고 포실 수 있는 곳, 갑자기 우울해 질 때 술 한잔 하자고 불러모을 수 있는 곳, 잘못된 걸 보면 "야 모예!"해서 우르르 모일 수 있는 곳, 아이들, 부모들, 교사들, 그리고 자신의 예쁜 것, 미운 것을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는 곳.....

보육교사들의 수다로 가득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수다가 모여 아이들과 교사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힘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서로에게 지지가 되는 보육교사회를 희망합니다.

울 한해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조건 없이 사랑하면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투명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 몸은 지쳐도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한해동안 일하면서 저의 마음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보육교사 여러분도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인희 · 인천지부

직업선택의 십계

-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 셋.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 넷.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 여덟.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일단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92년 처음 빈민타이를 시작 할 때, 나를 그 곳으로 보내기 위한 글인가 싶었습니다. 안정되고 수입도 괜찮은 직장을 버리고, 월 20-30만원 받으면서도 행복해 하며 일했지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상식을 거스르는 이 내용이, 당시 20대 중반이던 나에겐 감동이었습니다. 치기였겠지요.

지금, 받을 만큼 받고 일 하면서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올해 제 꿈은, '행복'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로서, 나와 지내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인천지부 모든 회원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든 보육교사들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먼저 행복해야 가능하겠지요.

어려운 때에 지부장을 맡고서 그 동안 참 우울했습니다. 상근도 반상근도 아니고, 현장에서 일 하면서 배려 받을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다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처음, 그 마음을, 그 어려운 때를 떠올리면, 꼭 인천지부 상황 같은 위 글이 제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왜냐구요?

앞을 다투어 모여들지도, 갖추어져 있지도 않으니, 처음 시작하는 황무지로 생각하고 그냥, 내가 선 자리에, 그대로 있자.(설마,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진 않겠지요? 인천지부 회원님들!)



강 영 신 · 경기지부(전)

2월도 다 지나가는 지금, 홈페이지의 우리네 아이들 목차를 보면서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부터 각 회장단의 인사 글, 해마다 있었던 행사들, 연중 기획 글, 현장일지들을 떠올리면서 그간의 나의 모습을 훑어 본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해부터 시작했으니 나도 어느덧 10년의 세월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 동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 낳아 큰 녀석이 올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학부모가 된다.

경기지부와 수원지회 일년을 계획하면서 바쁜 신사년을 그려본다.

조건과 달리 봐주어야만 하는, 자꾸만 늘어가는 아동들을 보면서 그저 열심히 한다는 말로만으로는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무엇인가 자꾸 일들을 만들어 보육교사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부터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보육교사로서의 일이 이제 겨우 안정이 되는 것 같다.

가끔은 내가 정말 내 아이들의 엄마가 맞나 할 정도로 내 아이에게 소홀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목말라 오는 보육에 대한 갈증이 작년부터의 지부장을 하면서 해소되는 것 같다는 느낌은 혼자만의 느낌일까?



이 정 미 · 광주전남지부장

안녕하세요?

한국보육교사회 광주전남지부장 이정미입니다.

신임지부장 인사글이라는데 저는 연임을 하게 되어 인사글만 이번까지 세 번째가 되네요. 그 동안 해내지 못한 일들이 많이 남아 다시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인사드립니다.

신입회원도 어느해 보다 많이 들어왔고 통일 정세 분위기도 매우 높으니, 올해는 열심히 일하면 성과도 많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김 명 선 · 부산지부

부산지역의 대표로서 2001년부터 2년간 한국보육교사회의 운명과 특히 부산지부인, 우리 부산보육교사회의 운명과 한해를 타고 갈 김명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장'을 맡고 보니 얻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평생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한 명함이 생기고, 핸드폰, 핸드폰 줄, 우산, 양말 등등... 상근을 한다 하니 밥걱정 때문인지 밥을 사주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서 뽕뽕뽕 살까지 옵니다. 조직의 이름으로, 혹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뇌물(?)로 늘 받기 바쁩니다.

이렇게 퍼주는 사람의 흉수 속에 넘쳐 살다 오만 방자해질까 두렵습니다. 또 한편은 원조형 애정이 풀릴 때의 적적함과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물론, 알지요. 제가 예뻐서 주는 게 아님을. 조직을 생각하고 지지, 지원해주는 회원들의 소중한 정성에 늘 깊이 고마워합니다.

올해는 우리 보육교사회가 교사대중조직으로 자기 자리매김을 바로 해내기 위해 활발한 모대검과 함께 진지한 고민과 실천들이 필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부산지역의 형편을 보면 전국적 견지에서도 우리 보육교사회 조직발전의 전망은 매우 밝으리라 장담이 됩니다.

우리 부산지역은 회원들이 조직을 생각하고, 지지하고, 한발 더 나서 보육교사회의 주인으로 각자의 처지에서 우리 회의 변화 발전에 도움이 될 역할들을 고민하고, 찾아보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풍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을 맡은 몇몇 일꾼들만이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부산 보육교사회의 주인된 역할을 찾아 나서는 적극성과 자주성이 무척이나 높아졌습니다. 나의 변화가 조직의 발전이 되고, 조직의 변화가 다시 나의 발전으로 돌아오는 우리 회원들과 보육교사회의 관계가 융합과 조화의 한몸 관계가 될 날이 머지 않은 듯 합니다.

우리 모두들 조금더 힘을 냅시다.

우선,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바라봅시다. 보다 또렷하게, 그리고 자신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정직하고 옳음을 믿고, 내 옆의 동지를 믿고, 우리가 함께 세워내고 함께 굴러내고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희망, 보육교사회를 믿읍시다. 그리고 함께 당당히 발전해나갑시다.



홍 미 숙 · 대구지부장

영접절에 회장을 맡게 되고, 그 처음 시작을 개인적인 일로 보내고 나니 당황스러움 반, 걱정 반입니다. 하지만 총회 때 보았던 보육교사들의 따뜻함과 아이들에 대한 정성을 의지삼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대구보육교사회는 이제 두 살이 되려 합니다. 첫뉘를 지나고 나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의 조심스러움과 용기를 생각하면서 작은 일부터 해야겠습니다. 우리 석석한 사무장님(정혜정 선생님)과 함께...

아직 한해 계획도 세우지 못했는데 이런 기대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올 한해가 마칠 때쯤 한치정도 더 커져 있는 대구보육교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중앙에서 수고하시는 공동대표님들, 부회장님, 사무장님 건강 살피시면서 활동하세요...



전래동요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

서은희 · 본회 공동대표 / 성균관대 유아교육학과 석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연환경, 생활양식, 언어, 습관 등의 차이에 의해 각 민족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되며, 고유한 특성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민족성으로 이어져 그 민족의 전통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전통문화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에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지키고 전승해 나가야 한다.

전통문화 중에서 전래문학은 세대를 거쳐 내려온 민족의 신념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 나라의 전통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전래문학은 우리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정서와 가락이 깃든 문학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 전래문학의 장르 중에는 아이들이 즐기며 전승되어 온 전래동요가 있다.(김세희, 1994: 1) 동요는 아름다운 운율을 가진 대표적인 형태이며, 그 중 전승문학으로서의 전래동요는 누구나 공감하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우리만의 서정과 운율을 가지고 있다.(정미라, 1992: 3) 장래 우리 민족이 고유한 문화예술을 가진 민족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정신적 맥락이 연결될 수 있는 음악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본적인 단계로 한 민족의 생활사요, 정감이 깃들인 구전 전래동요로 시작하여 민요, 가곡 등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이길숙, 1989: 4)

영어 사용권에서는 동요를 '어린이의 노래(children's song)' 또는 '유아의 노래(nursery song, nursery rhyme)'라고 하여, 교육이나 보육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둔다. 서양에는 우리 나라처럼 '전래동요'라는 특별한 말이 없다. 어린이의 노래는 다 전래동요이며, 전래동요는 다 어린이를 위한 노래이기 때문이다. 서양의 동요는 18세기 것이 가장 많고, 초등학교 음악교육은 이러한 노래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기초적인 음악교육을 서양음악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배우는 동요가 서양음악으로 만든 창작동요이기 때문에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 전래동요라는 명칭을 따로 가지고 있

는 것이다.(홍양자, 1997: 285-286)

1980년 대 중반 이후 사회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 현장에서 전래동요를 가르치려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일어났다. 예전보다 더 활발히 전래동요가 채보되어 정리되었고, 교사용 전래동요 활용 지침서와 테이프 등이 제작되었다. 또, 전래동요와 놀이에 관한 단행본 서적의 출판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많아지고 다양해졌으며, 90년 대 초반부터 전래동요에 관한 많은 수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전원범, 1992; 이명일, 1994; 조항순, 1996; 이진삼, 1999, 등등)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전래동요를 찾기는 아직도 어렵다.

현재 많은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는 태교를 위해 들려주는 서양 클래식 음악을 듣고, 태어나서는 '잘자라 내 아기'와 같은 서양 자장가를 들으며 자라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1년에 한두 번 우리 나라 명절 즈음하여, 아니면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라는 단원에서 우리 전래동요를 스치면서 배우고 지나간다. 이것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 전래동요를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전부이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전래동요를 잘 모르거나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전래동요를 제대로 접해보고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들 생활의 일부로서의 전래동요가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따로 떨어져 특별하게 교육되는 형태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전래동요가 아이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기부터 전래동요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서양 음악법이 아닌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음악법으로 생활로써, 놀이로써 전래동요를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옛날 우리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자장가를 시작으로 동요를 만났고, 소꿉놀이를 하면서, 잠자리를 잡거나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또는 이 빠진 친구를 놀리거나 아름다운 자연현상이나 초목을 대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므로 전래동요는 모든 어린이들이 즐겨 불러 온 어린이의 낯이요, 어린이의 마음을 연결해 온 끈이요, 어린이들의 정신적 성장의 거름이 되었다.(전원범, 1992: 20) 21세기 최첨단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요즘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정신적 성장의 거름은 꼭 필요하다.

그 동안 국문학과 민속학계에서 연구되어지고 채록되어 정리된 전래동요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그 양이 많다. 가르칠 전래동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전래동요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래동요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이정희, 1995; 박수정, 1996; 김보경, 1997; 유재선, 1999, 등) 그러나 초등교육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지고, 교육과정에 전래동요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반면, 아직 유아교육 현장에서 연구된 연구물들은 미비하며 교육과정에서의 비중도 아주 적은 편이다. 전래동요를 나이 어린 영유아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은 아이들의 정신적 성장의 밑거름이 될 전래동요를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하여 교육현장에서, 생활에서 실천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래동요 지도방법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전래동요는 우리 음악의 특징을 살려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고 보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전래동요를 지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어린이집 교사들의 전래동요 지도방법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전래동요에 대한 교사들의 선호도는 어떠한가?
2. 전래동요 교사 재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3. 전래동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는 어떠한가?
4. 교사들은 전래동요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민간, 국·공립 시설 어린이집 교사 29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 문항은 총 23문항으로, 전래동요에 대한 교사의 선호도(2문항), 전래동요 교사 재교육 현황 및 내용(4문항), 전래동요 관련 교수·학습 자료(3문항), 전래동요 지도방법(14문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각 문항별로 교사가 응답한 내용을 총 집계하여 전체 사례 수에 대한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4. 연구결과

1). 전래동요에 대한 교사 선호도

전래동요에 대한 교사 선호도는 좋아한다 65.5%와 그저 그렇다 33.8%로 응답하여 전래

동요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훨씬 많았다.

부를 수 있는 전래동요의 수가 0-5곡 정도인 교사가 44.7%로 가장 많았고, 6-10곡이 38.8%, 11곡 이상 부를 수 있는 교사가 16.4%로 응답하였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전래동요가 수 백곡에 이르는데, 이 중 교사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평균 10곡 이내라는 사실에서 현재 우리 나라 전래동요 교육의 현실을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많은 교사들이 어린 시절 자라면서 전래동요를 제대로 배우고 익히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 현직교육을 통한 교사 재교육과 대학이나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의 직전교육 교육과정 중에 전래동요에 대한 교육 내용이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전래동요 교사재교육 현황

전래동요에 관한 교사 연수 참여 여부와 빈도는 1-2회 연수를 받았다는 교사가 51.6%, 연수받은 경험이 없다고 34.2%, 3회 이상 연수받았다고 14.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수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가 65.8%로 연수 경험이 없다고 답한 34.2%보다 많지만, 전래동요를 불러 보고 놀아 본 경험과 학교에서 전래동요를 배워 본 경험이 거의 없는 교사들이 1-2번의 교사 연수를 통해 전래동요를 자신 있게 지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껏 한 번도 교사 연수에 참여하지 못했던 교사들의 참여 못한 이유를 알아본 결과,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한 교사가 69.3%로 가장 많았고, 14.7%가 시간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보육 교사들의 근무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보육 시설은 방학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재교육 받기가 어렵고, 근무 시간 중이나 근무 끝나고 교육을 받을 경우 개인적인 회생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의 연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연수 내용이 이후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된 교육 내용으로 전래동요 부르기 47.1%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장단 익히기 27.7%, 악기 배우기 13.6%, 우리 음악 이론 6.8%, 기타 4.9% 순서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교사 연수에서 배우고 싶은 교육 내용으로는 악기 배우기가 22.2%로 가장 많았고, 전래동요 배우기 21.7%, 장단 익히기 18.8%, 전래동요와 함께 할 수 있는 전래놀이(춤) 13.5%, 춤과 율동, 기타 7.2%, 교수법 4.8%, 전래동요 이론 4.3%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렇게 배웠던 교육내용 중 좋았던 것과 앞으로 배우고 싶은 교육내용 순위가 다른 것은, 이전 연수에서 전래동요 부르기를 교육받았던 교사들이 이제는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응답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전래동요 교수-학습자료

교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이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알아본 결과 녹음 테이프가 48.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참고서적 29.7%, 음반 10.9%, 비디오테이프 7.8%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우선적으로 보급되어야 할 교수-학습 자료의 순위를 매긴 결과 녹음테이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서적, 비디오, 악보, 음반 순으로 나타났다. 노래를 가르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 노래를 익히는 것이므로, 교사들이 현재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학습 자료도 녹음테이프인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우선적으로 보급되어야 할 것도 56.6%로 녹음테이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현재 아이들에게 전래동요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교재는 한국어린이 육영회에서 나온 자료와 녹음테이프였는데 37.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4.6%가 월간 유아교육 잡지, 22.6%가 기타 자료, 단행본 서적 9.3%, 교육부, 복지부의 자료집과 테이프가 6.5%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교사 연수회에서 받은 자료집이나 녹음테이프라고 대답한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4. 전래동요 지도방법

전래동요를 가르치기 전에 사전 교육 준비를 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교사들은 가끔 그렇다 46.4%, 아니다 33.8%, 그렇다 19.6% 순으로 응답했다. 전래동요가 몸에 익숙해서 따로이 교육 준비를 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왜 사전 교육 준비를 하지 않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전래동요를 어느 때 가르치느냐는 물음에, 42.0%가 일상적으로 가르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특정단원에서 가르친다 37.1%, 특별행사를 위해 날을 정해 가르친다 20.8%로 나타났다. 또 전래동요는 어느 때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는 물음에 94.1%가 일상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많은 교사들이 전래동요를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양은정(1996)은 대부분의 교수자료집이 우리 나라 단원에서만 전래동요 및 전통문화에 대한 활동들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간 교육계획안을 세울 때 일상적인 전래동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인 전래동요 교육 자료집이 개발되어야 하며, 교사 재교육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래동요를 부를 때 반주 방법은, 반주 없이 그냥 부른다고 응답한 교사가 31.9%로 가장 많았고, 국악기 사용 21.5%, 국악기로 녹음한 자료 사용 20.6%, 건반 악기 사용 18.0%,

전반 악기로 녹음한 자료 사용 8.0%로 나타났다. 또 서양악보로 기재되어 있는 전래동요를 보고 우리 음악의 특징을 살려 노래부르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한 교사는 6.4%에 불과했으며, 조금할 수 있다 47.0%, 할 수 없다 4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서양 악보로 기재되어 있는 전래동요를 보고 우리 음악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르고 연주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경숙(1995)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민요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들도 민요가 서양 악보로 채보되어 있어 민요의 특징을 살려 지도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음악 교과서의 악보가 정간보(井間譜)와 서양 악보의 혼용으로 기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에게 전래동요를 우리 음악의 특징을 살려 노래부르고 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악보 기재 형태를 묻지는 않았으나, 많은 교사들이 현재와 같은 기재 방법으로는 전래동요를 우리 음악의 특징을 살려 노래부르고 연주하기 어렵다고 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래동요를 부를 때 장구에 의한 장단 지도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 49.3%, 할 수 없다 35.6%, 가능하다 15.1%로 나타났다. 대학이나 교사 양성 기관에서 피아노를 배워야 하는 것은 교과 과정 중 필수이나 우리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교과 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직전 교육을 통해 예비 교사들이 우리 음악 연주의 기본이 되는 장구, 또는 그 밖의 우리 악기를 기본으로 배우고 교육 현장으로 들어온다면 우리 음악 교육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래동요를 부를 때 어떤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느냐에 대한 응답으로 평상시 내는 목소리로 부른다고 답한 교사가 53.9%로 가장 많았다. 맑고 고운 소리로 노래한다 31.5%, 질박하고 투박한 소리로 노래한다 14.6%로 나타났다. 김경숙(1995)에 의하면 목소리를 가다듬어 맑고 고운 소리를 내며 노래 부르는 창법은 서양의 벨칸토 창법으로 18세기 이후에 보편화된 서양 노래의 창법이다. 그러나 민요의 창법은 단전을 통해 배에서 힘껏 뿜어져 나오는 약간은 거친 듯하며, 투박하고 질박한 소리를 내면서 시김새를 살려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전래동요는 민요의 일반적인 특징을 대체로 따르지만 민요보다 단순하고 소박하다. 그래서 민요보다 질박하고 투박한 소리를 덜 내고 자연스러운 발성을 하게 되지만 그 기저에는 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맑고 고운 소리로 전래동요를 부른다고 답한 교사들은 서양의 창법과 우리 노래의 창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교사들이 평상시 내는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고 답했는데, 사실 우리가 평상시 내는 소리도 맑고 고운 소리를 지향하며 내는 소리가 대부분이다. 우리 노래는 호흡을 통해 배에서 내는 소리가 기본인데 평상시에 우리는 깊은 소리를 내기보다는 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로 내기 때문에 현재

많은 교사들이 전래동요를 부를 때 제대로 된 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래동요를 부를 때 단전호흡과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호흡과 발성을 하여 노래를 가르치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60.3%, 부족하나마 그렇게 하려고 한다 37.4%, 그렇게 한다 2.3%로 응답하였다. 앞의 질박하고 투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도 단전호흡과 배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는 소리 대부분이 목에서 내는 소리이므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이런 호흡과 발성을 몸에 익힐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래동요를 가르칠 때 놀이 또는 춤을 함께 가르치느냐는 질문에 50.7%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33.8% 그렇지 않다, 15.5% 가끔 그렇게 한다고 응답하였다. 전원범(1995)은 전승되고 있는 전래동요 중 전래놀이동요를 총 580곡으로 분류하였다. 전래동요 중 놀이나 춤이 함께 하지 않는 노래보다 놀이나 춤이 함께 하는 전래동요가 훨씬 많다. 이는 아이들과 놀이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 상황에 맞는 노래를 그 때 그 때 부를 수 있다면 아이들의 놀이는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전래동요를 가르치면서 장단지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노래를 가르치기 전 녹음테이프를 자주 들려준 뒤 장단을 말로 익히고 노래와 춤을 가르친다고 응답한 교사가 68.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장단을 말로 충분히 익힌 뒤 노래와 춤을 가르친다가 18.7%였다. 국악기로 장단을 익힌 뒤 노래를 가르친다 10.5%, 기타 1.8%로 나타났다. 오봉석(1999)에 의하면 장단을 익힐 때는 먼저 장단을 말로 충분히 익히는 구음훈련을 하고, 그에 맞는 노래로 장단을 익히고 그에 맞는 춤을 추게 되면 우리 장단을 아주 신나게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단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87.6%로 나타나 많은 교사들이 장단 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래동요를 가르칠 때 어린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가 43.4%, 잘 모르겠다 42.0%, 그렇지 않다 13.7%, 기타 0.9%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교사가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연구 대상인 교사들이 서울, 경기 지역의 교사들로, 획일화되어 가는 대도시의 모습 속에서 지역적 특색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각을 평소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래동요를 부를 때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호흡과 발성을 하느냐는 질문에 2.3% 그렇게 한다, 37.4% 부족하나마 그렇게 하려고 한다, 60.3%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래동요를 부를 때 강박으로 시작하여 약박으로 맺는 방법으로 노래를 가르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한다 5.9%, 부족하나마 그렇게 하려고 한다 67.1%, 그렇게 하지 않는다 26.9%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입 말투의 노랫말, 메기고 받는 형식, 떠는 음, 꺾는 음 등의 맛을 살려 가르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한다 2.3%, 부족하나마 그렇게 하려고 한다

50.2%, 그렇게 하지 않는다 47.5%로 응답했다. 앞의 3가지 질문에 한 가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대답한 이유를 알아 본 결과 72.1%의 교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앞으로 전래동요를 교육 현장에서 교육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사 교육의 중요성이 또 한 번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교사들이 자라 오는 과정에서 우리 음악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 전래동요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몰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제라도 교사 재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고, 직전 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충분히 우리 음악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5. 제언

첫째, 교사들이 전래동요를 자신 있게 부를 줄 알고 일상적으로 불러야 아이들에게도 일상적인 전래동요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사들은 전래동요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몰라서, 또 부를 줄 아는 노래가 몇 곡 안돼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직전 교육과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현직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육은 1회성 교육이 아닌 일정기간 지속되는 교육 프로그램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 현재 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전래동요학습 자료는 녹음테이프이다. 이는 노래를 익히기 위해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것이 많이 들고 따라 부르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음악의 특징을 제대로 살려서 부른 전래동요 테이프가 제작되어 교육 현장에 많이 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셋째, 전래동요가 아이들 생활에서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 주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부모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각 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전래동요 교육 강화를 열어 부모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서양 음악의 기법으로 우리 노래를 가르쳐서는 참다운 우리 노래를 가르쳤다고 할 수 없다. 아니 이렇게 전래동요를 배운 아이들은 그것이 우리 노래인 줄 알게 되며, 이후에는 우리 음악이 아닌 서양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알고 그것이 전승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전래동요 지도에 관한 학습자료, 도서, 교재 등을 전면적으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플라스틱 장난감을 자연물 장난감으로 바꿔주세요.

- 동구미를 활용한 소꿉놀이 -

동구미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크고 작은 바구니에서 가방에 이르기까지....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에서 동구미 만들기 교육을 받고 온 다음 날

아이들과 함께 해보기 위해 교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만들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만들 때 옆에서 도와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만져보고 뭐냐고 물어보고....

"애들아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이 바구니 만들어 줄게."

위낙 만들기에 숨씨가 없는지라 아이들은 기다림에 지쳐 하나 둘 사라지고... (에고 ~ 외로워라 !!)

만들기 시작한 지 한참×한참 후에야 바구니 같은 것이 하나 완성됩니다.

어설픈게 만들기는 했지만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러 줍니다.



"우와!~~~~~"

그리고는 좋다고 가지고 다니며 열심히 놀이를 합니다.
너무 어설프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좀 더 새롭고 재미있는 놀이감을 제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역할놀이 세트-made in 동그라미'

동그라미의 역할 놀이 세트는 동그라미 친구들에게 인기 만점인 놀이감이지요. 천사와 여러 색깔의 털실을 이용해 만들어 화사해(?)보이기까지 하는 역할놀이 세트. 아이들이 하는 역할 놀이에 교사가 함께 해준다면 따 ~ 붕!!

배낭처럼 생긴 동구미는 시장바구니가 되어 메고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올 수 있는 도구가 되구요. 부메랑(?)처럼 생긴 커다란 동구미는 상을 차리기 위한 쟁반이 되고, 영성하게 만들어준 소쿠리는 과일 담은 바구니가 되지요. 밥과 찌개를 위한 냄비, 볶음밥을 할 수 있는 후라이팬, 식사를 하고 나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기 위한 커피잔과 받침대....

동그라미표(?) 역할 놀이 세트는 정말 없는 것이 없답니다.

아! 지금 생각해 보니 손가락과 젓가락이 없군요. 이럴 수가 (없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 손가락 없이 밥 잘 먹어요. ^^"

이 역할놀이 세트는 동그라미 장난감 창고에서 없으면 아니 될 장난감이 되었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재미있는 것을 연구해 보아야겠네요.

동구미의 더 많은 확산(?)을 위해 부친에서는 3월에 많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동구미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조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잘 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지원이의 자위행동

아래의 글은 지난 해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생활 속의 성교육 사례발표회'에 우수 사례로 뽑힌 당선작입니다.

지원 이(가명 5세 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적인 아이이다. 특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아주 대단하여 새로운 사람이든, 새로운 환경이든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빨리 적응을 하는 편이다. 그리고 아주 활동적인 아이이다. 나들이를 나가서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운동신경도 뛰어난 편이라 나무타기 실력은 그 누구도 따라갈 자가 없다.

그런데 지원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유독 울음을 많이 터뜨리는 편이다. 처음엔 지원이가 우는 것에 대해 교사와 부모가 다른 아이들의 울음을 대하는 것과 같은 관심을 보였으나, 얼마 전부터는 지원이가 우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원이의 울음은 지원이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의사표현의 한 종류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관찰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자위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막 4살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처음에는 실내활동을 할 때 구석진 곳에서 혼자 작은 의자에 앉아 무릎을 꿇고 다리사이를 의자의 모퉁이에 대고 비벼대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처음 한두 번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저러다가 금세 잊어버리고 다른 놀이에 열중하겠지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행동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자위행동은 그 횟수가 늘어갔고, 구석진 곳에서만 하던 자위행동은 점차 아이들과 어울려 다른 놀이를 할 때도 같이 병행되기 시작했다. 거기다 놀이보다는 그 행동에 다 많은 집중과 힘을 기울여 하고 땀까지 흘려가면서 하는 것이다.

자위를 시작하고서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활동적인 면들이 많이 사라졌다. 지원이의 활동적인 에너지가 자위하는 데로 많이 옮겨간 듯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사회의에서 지원이의 행동을 관찰한 내용을 보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단은 아이가 자위를 하려고 할 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지원이가 자위를 시작하거나 할 눈치가 보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사가 아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노력을 기

울고,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해서 부모상담을 했다. 집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함께 노력해 보기로 했다.

그 후로 부모님은 저녁에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다. 주로 식사 후에 함께 산책을 하거나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며 아이와 놀아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어린이 집과 집에서 서로 연계해서 노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원이의 자위는 예전보다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지원이는 어른들이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으며 자위를 할 때는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이었다. 가끔은 자위를 너무 격렬하게 오랫동안 하는데 교사들이 관심을 돌리기 위해 아무리 애써도 안되어서 강제로 멈추게 했더니 신경질을 내고 다른 곳, 즉 교사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자위하는 일이 생겨났다.

지금까지 교사가 대응했던 방법들이 이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서로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꼴이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 힘이 쭉 빠졌다.

다시 부모님과 상담을 했다. 지원이 부모님이 전문가(정신과 의사)에게 자문을 드렸더니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 단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성에 관해서 호기심을 갖고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시기나 행동들이 다를 뿐이라고 했다고 한다. 부모님과 상담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다. 우리의 지나친 행동 아니 민감한 반응이 어쩌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준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사회의를 통해 지원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교사)는 지원이도 이제 5살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충분히 알아듣고 다는 아니지만 자기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다면 지원이와 직접적으로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 자위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지원이 스스로 인정한다면 아이와 함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이가 자위행동을 할 때 지원이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원아,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

행동을 하면서 우리를 쳐다보더니 헛바닥을 한 번 내밀고

"네,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지원이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잠지가 아플 텐데, 전에도 지원이가 나한테 잠지 아프다고 하면서 울었잖아. 맞제?"

"네, 아팠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지원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도, 예쁜 아기도 낳아서 엄마도 되어야 하는데 너무 그런 행동을 많이 해서 잠지가 아프거나 고장이 나면 아기도 못 낳고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플 수도 있데이~ 나는 우리 지원이가 아프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서 건강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예쁜 아기도 낳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원이도 눈빛을 반짝이며 고개까지 끄덕인다. 얼마만큼 알아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서 다시 지원이에게

"그러면 지원이가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표시를 해도 될까?" 라고 하니 지원이가 하는 말이,

"네, 근데요. 집에서는 안 하는데 여기서는 자꾸 해요"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지원이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원이가 자위를 할 때마다 지원이의 손을 꼬옥 잡아주면서 눈을 바라보며 '지원아~'하며 이름을 불러주기로 했다. 그러면 지원이가 하던 행동을 멈추기로 약속을 했다. 지원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야기를 잘 이해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서로간의 약속을 잘 지켰다. 그 전보다는 자위하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우리는 어린이 도서 전시회에 갔다. 거기 전시된 책 중에서 우연히 [엄마가 알을 낳았대요.]라는 책을 보았고 아이들에게 읽어 주었더니 아이들은 재미있게 들었다. 지원이는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책을 사겠다고 해서 사 가지고 왔다. 그리고는 어린이집에 들고 와서 교사들에게 읽어 달라고 해서 읽어 주었다. 지원이는 눈빛을 반짝이며 아주 재미있어 하며 그림책을 봤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지원이네 가족끼리 영화를 보러 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영화 중간에 어른들의 성관계 장면이 나왔는데, 지원이 언니(10세)가 지원이에게 하는 말이 "지금 서로서로 힘을 합치고 있는 중이야" 하니 지원이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리서 부모님들이 놀랐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한탄탕 웃으면서 속으로는 감동 받았다. 지원이 언니가 하는 말은 그림책 [엄마가 알을 낳았대요]에서 엄마 아빠가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친다는 이야기를 생각해 내고는 한 것이리라... 그리고 지원이도 그 때 그 그림책을 생각했었겠지...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어른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너무나 명쾌하게 답하는 것이... 하여튼 감동이었다.

유아기 때 지원이 같은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흔히 볼 수 있다. 다만 시기와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시기에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럴 때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혹은 아무런 기준 없이 대한다면 아이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과 성적 수치스러움 혹은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른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성적인 행동을 어른들의 기준을 가지고 쉽게 도덕적 판단을 해 버린다는 거나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단정을 지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지원이의 자위행동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라면, 성교육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발도르프모임을 통한 현장연구

- 영유아기 성장 발달에 대해 1

정리 | 편집부

아래의 글은 99년 11월부터 약 1년간 진행된 발도르프연구 소모임에서 윤선영 선생님(간양대 보육학과 교수)과 현장 교사들이 모여 토의한 내용을 정리 한 글로 이후 우리네 아이들에 연재할 예정입니다.

발표

영아기의 발달 사례연구

문현주 · 이웃사랑어린이집

사례연구를 위해 아이들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영아기의 발달'이라면 너무 광범위함을 느끼게 되었다. 신체적 발달, 정서, 행동발달, 언어 발달 등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이들마다 성격과 기질이 달라 일반적인 특징을 찾아본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내가 사례연구 아동으로 지목한 아이는 3월에 입소하여 지금까지 다니는 여아인데 1년 가량 지켜본 결과 언어 발달과 정서 발달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 관심을 가져보았다.

아동이름 : 김민지(여), 35개월

별님반2~3세반에 다니며 별님반은 13명의 아동을 2명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가정 환경

➤ 회사에 다니는 아빠와 초등학교 교사인 엄마와 함께 살며 엄마가 등원시키고 데리고 간다. 무남독녀인데도 엄마가 용석을 잘 받아주지 않고 엄마는 아이의 성격이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다고 알고 있다. 엄마는 현재 임신 중이다.

집에서의 생활(엄마의 평가)

➤ 매일 아침 바쁜 시간에 옷 때문에 싸우다 보면 화나지요.(예쁜 치마를 입겠다고 고집 피운다고 함) 완전히 공주병이에요. 동화책, 비디오도 공주 나오는 것만 보려고 하고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해요. 집에서 항상 교사와 엄마를 비교해서 말하며 잘 안 받아 주니까 선생님 보고 싶다고 울고 야단이에요.

교사가 본 성격

➤ 전형적인 여자아이라는 느낌이 든다. 연약한 몸이지만 지기 싫어하고 성격이 강하다. 소근육의 발달이 잘 이루어진 것 같으며 책을 많이 보고 관찰력도 있고 섬세하다. 질문이 많으며 이야기를 잘 하는데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월별사례

3월 거의 울다가 시간을 보냄. 잠잘 때 엄마 찾으려 대그를 활동 시 관심을 보임.

4월 친구를 밀고 꼬집고는 부드러운 말투로 중얼거리며 달렘. 욕심이 많아 친구가 가진 것은 맘에 들면 무엇이든 가지려 하고 뺏기 위해 친구를 때리다가 교사와 눈이 마주치면 맞은 아이보다 더 크게 울어 버린다. 자존심이 강해 바지에 똥을 싸고 엄마한테 간다고 억지를 씀.

낮잠 자고 일어나 울려고 하면서 교사를 쳐다보기에 못 본 척 했더니 일어나 친구들과 어울림. 가위질에 흥미 있어 함.

5월 엄마와 헤어질 때 울다가 금방 멈춤. 하원시간이 되면 엄마를 많이 기다림. 꼭 차도록 그림에 색칠하며 성취욕이 강해서 아이들과 충돌이 잦다. 잠버릇이 많이 좋아졌으며 자기 베개만 있으면 끌어안고 잔다. 선풍기 오릴려고 노력할 정도로 가위질이 좋아졌다. 풀로 붙이는 작업 시 풀을 붙이는 면을 잘 구분하지 못하며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역할 놀이에서 해선이와 서로 엄마하겠다고 싸우다가 교사에게 레고로 케익을 만들어와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했다.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 주었더니 민지가 다시 읽어 주겠다고 그림을 보고 적절하게 이야기 함. 친구를 심하게 때리며 절대 양보 안 함.

6월 바깥놀이 나가면 친구들에게 호의적이며 다양한 놀이도 즐기며 양보도 잘 한다. 교사가 책을 읽어줄 때 옆에 아무도 못 앉게 하며, 친구를 먼저 때리고 교사에게 동정을 얻고 싶어한다. 엄마가 데리러 오셔도 놀이에 빠져 있을 때가 많으며 장난감을 가져간다고 고집 피우다가 안 된다고 하면 던져버리고 매를 씀.

7월 "나 예쁜 치마 입었어요." 하얀 원피스 입고 와서 계속 거울 보며 날아갈 듯 춤을 추다가 주은이가 꼬집자 거울 보며 울었다. 모래놀이 하자고 하니까 "이 옷은 있다가 엄마랑 갈 때 입을 거야. 하며 옷을 벗는다. 모래놀이 하면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알고 있다. 노래와 율동을 거의 완벽하게 따라 함. 달팽이 관찰 시 "선생님, 달팽이가 당근 먹고 당근 똥 싸어요."

8월 엄마가 방학이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더니 등원 시 다시 울기 시작하며 어리광 많아지고 교사가 안아주길 원함. 집에서는 계속 어린이집 가겠다고 조르며 교사를 찾는다고 함.

"민지는 이제 누나 될 거예요." 엄마가 임신하였다.

예쁜 치마를 입고 도취된 듯 거울을 보며 춤을 추고 있었다. 혜선이 뒤에서 따라하자 돌아서며 "넌 춤추면 안돼. 예쁜 치마도 안 입었잖아. 하지마." 이 사건으로 혜선에게 맞고 울었다.

교사가 보지 않으면 춤도 추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교사가 지켜보면 말도 듣지 않고 교사의 반응을 살핀다.

간식, 식사, 낮잠을 모두 거부하는 행동을 보인다. 밥을 먹여주길 위해서 민지는 누나가 될 거라고 칭찬해 주고 모른 척하니 어느새 다 먹고 새침테기처럼 앉아 있다. 교사가 옆에 앉길 원하며 관심을 더 받고 싶은 행동으로 보인다.

10월 대단히 왕성한 식욕을 보임. 실습교사에게 "엄마별 아기별 그려주세요. 빵방도 그려주세요." "민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길다란 동그라미 세 개 그리고 "이건 아빠, 이건 엄마, 이건 민지... 그런데요 애버랜드 갔었어요. 민지는 아빠랑 사다리 같은 걸 탔어요."

11월 바깥놀이 갔다 돌아가는 시간에 모두 줄을 서는데 친구랑 손잡고 뛰어 다님. 교사가 부르니까 한 번 쳐다보고 친구랑 눈 맞추고 싱글싱글 웃더니 못 들은 척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교사가 간다고 해도 무반응. 정말 모두 출발했는데도 신나게 놀고 있다. 들어와서도 계속 교사의 말을 못 들은 척 하고 무시해서 반성하라고 서 있게 했더니 환경 부착물을 모두 뜯어버리고 교사만 뻔히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악물리는 것처럼. 촉감 놀잇감 속에 들어 있는 숨을 만져보고 "구름이네. 하얀 구름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해님이 가렸어요."

12월 "엄마는 아프게 씻기는데 선생님은 안 아프게 해서 좋아요." "양치는 누가 제일 잘 하지요? 민지가요?" 머리를 빗겨주는데 울먹거렸다. "왜 그러냐? 민지야." "아파도 참는 거예요." 다 빗겨 주고 나서 거울을 보더니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건 하나넌니 머리가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왜 나랑 같은 남방 안 입었어요?" 교사와 비슷한 체크 셔츠가 있는데 선생님처럼 한다고 계속 입고 다님.

1월 백설 공주 책을 들고 등원했다. "선생님, 백설 공주 책에는 마녀가 나와요. 그런데 그 마녀는 계모예요. 그러면 신데렐라에도 계모가 나오는데 그 계모도 마녀예요?" 교사가 설명해 주면서 "민지야, 계모가 뭔지 아니?" "나쁜 엄마요. 그러구요. 헨젤과 그레텔에도 마녀가 나오거든요. 마녀가 너를 잡아먹겠다 해서 무서웠어요. 과자집은 좋은데 마녀는 싫어요."

백설 공주가 깊은 산 속에 버려져서 어둡고 무서운 장면을 입체 그림 동화에서는 나무에 눈, 코, 입이 달려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었다. 산하가 "와! 귀신이다." 하자 민지가 "아니야, 도깨기야" 산하가 놀리면서 "아니야, 귀신이야" "으앙! 도깨기라니까"

도깨기는 도깨비를 말하는 듯 하다.

토론

문현주 교사경력 1년 가량 되었다. 영아기 발달하면 신체, 언어, 정서 등 광범위하게 유난히 언어발달이 많은 아이에 대한 사례를 있는 그대로 적었다.

이윤경 대개는 24개월을 전후해서 24개월 이전 영아와 24개월 이후 영아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 24개월 전후로 가장 구별되는 특성은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24개월 이전에는 성인에 대한 관심이 크고 실제로도 생활 속에서 성인과 관계를 맺는다. 24개월을 넘어서면 또래에 관심을 보이고 다름도 일어나고 24개월 이전에는 아이들이 많으면 스트레스 받는다. 교사나 또래의 반응에 민감하다. 언어발달의 경우 24개월 이전에는 언어표현이 주로 몸으로 된다. 대소변 가리기가 아이들 발달에서 전환점이 된다. 혼자서 화장실을 가느냐가 자율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24개월이 지나도록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영아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체를 움직이는 것에서 호기심과 희열을 많이 느낀다. 자신의 발달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4개월 이후 뛰고 걷기를 많이 하지만 관심의 영역이 넓어지고 사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자기 물건을 챙기고 기억하며, 자기 것을 구별한다. 24개월 이전에는 보이다가 안 보이면 잊어버린다. 24개월 미만 아이들끼리 노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노는 것 같다가도 성인이 없어지면 울어버린다. 성인이 있다는 것 자체에 안정감을 느낀다. 24개월 넘어서면 교사를 피하기도 하고 벽장 같은데 자기네들끼리 들어가 있기도 한다. 어른의 시선보다는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을 찾는다.

윤선영 두 선생님의 이야기에 영아기 발달의 모든 요소가 현장감 있게 들어있는 것 같다.

문현주 반항기의 특성이 들어있다.

질문: 민지라는 아이가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 치마를 좋아하고...엄마가 예쁜 옷을 입히고 머리 빗기고 이런 스타일인지?

문현주 전혀 그렇지 않다. 엄마는 화장도 안 하고 어제 빗겨진 머리채로 오기도 한다. 친구들과 경쟁심이 많아 친구들 옷이나 이쁘다는 말에 민감하다. 엄마의 영향은 아닌 것 같고 동화책 읽어주면 책 내용보다 그림을 보고 이 옷 너무 예뻐요 한다든지, 항상 거울을 보고 거울 있는 자리에 앉아있다. 이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고숙영 T.V 영향도 클 것이다.

김정은 아이가 많은 시간을 엄마 이외의 사람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엄마에게서 찾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우리 어린이집에 교사 하나가 화장을 잘 하는데 어떤 아이가 유난히 관심을 갖는다. 혹시 교사 중에 공주병이 있는 건 아닌가?

이윤경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다.

윤선영 문제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보다 왜 성에 대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유난히 심하게 나타나는지, 그런 경우 어른으로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T.V.의 영향도 있다. 만화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결같이 긴 머리에 예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다.

이윤경 우리 때도 있었던 것 같다.

윤선영 지나치게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그림을 많이 본 아이(공주 그림, 마녀 그림 등)나 뽀뽀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아이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우리 아이는 남자아이라도 치마 입기를 좋아해서 누나 옷도 입었는데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놀리니까 나중엔 안 입으려고 한다.

고숙영 어른의 말 한마디가 강화를 시켜준다.

문현주 이쁘다는 말에 민감하다.

윤선영 동생을 보는 것 때문에 엄마의 애정을 확인하려고 더 집착을 갖는 건 아닐까?

문현주 엄마는 힘든데 아이가 조잘대면 엄마는 딱 잘라버린다. 아이가 그래서 더 오버액

션을 하는 것 같다. 철이 아난데 알면서도 여름치마를 입으려고 한다든지. 머리가 좋은 것 같다. 교사의 반응을 보며 돌려 이야기하고 행동한다.

윤선영 아이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는가?

문현주 진지하게 들어준다. 엄마는 끝이 없으니 너무 힘들다고 한다.

윤선영 그런데 그 엄마는 교사와 하루종일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다 임신 중이고 그것을 아이가 아이가 극단적인 시기... 이 시기는 아이한테 가장 많이 놀라고 감탄하는 시기이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 힘들기도 하지만 표현하는 것 하나 하나가 놀라움을 주어서 혹시 이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의 말을 음미하다보면 아이의 말이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까? 천재적인 면을 환기시켜주는 것을 교사가 해야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잘 하는 부모일수록 한결 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이 순간처럼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기만큼 소중한 시기는 없다고 한다. 이 시기를 즐겁게 만끽하려는 것이다.

고정미 여기 보면 아빠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 엄마는 집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데, 아빠가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주면 좋을 텐데. 나도 신랑과 계속 싸우는 게 집안 일과 T.V 문제다. 국악강사다 보니까 집에서는 조용히 있고 싶다. 인천에서 결혼 안 하신 교사들한테 혼수품에서 T.V를 빼라고 이야기한다. 집안에서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나누는 것이 아이에게 영향이 크다.

문현주 나도 민지 아빠는 한번 밖에 못 보고 바쁘다고 한다. 민지가 아빠에 대해 하는 말은 뭘 사주었다는 말 뿐이다.

윤선영 가끔이라도 동화를 들려준다면, 잠을 재운다면 하는 일을 아빠가 할 수 있을 텐데.

고정미 아빠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김정은 부모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식지라든지.

김태우 내가 보기엔 민지가 동적인 활동보다 정적인 활동이 많은 것 같은데 또래와의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민지랑 나랑 닮은 것 같아서 하는 애긴데, 나도 어렸을 때 민지처럼 말이 많고 유치원에서 적응을 못하고 그랬다. 시골에서 살다 서울 와서 친구들과 잘 적응하지 못하고 뛰어 놀기 보다 책보기, 혼자놀이, T.V 보기를 하며 지냈다. 내 기억에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시키는 사람이라는 기억으로 남는다. 교사가 민지가 다른 활동에서 잘 하는 것에 반응하면서 또래와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같다.

문연주 민지가 제일 잘 하는 것이 바깥놀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다. 민지는 다른 아이들이 다 좋아하고..... 문제는 충돌이 생기면 먼저 온다.

김태우 주도를 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윤경 36개월 이전의 나이에서 또래와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 시기는 병행놀이를 하는 시기다. 나는 영아기에 또래와의 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이에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 개별관계를 맺는 시기이고 게임을 해도 2-3명씩 협력해서 하는 놀이는 어렵다. 민지 같이 리드할 수 있다면 사회성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고숙영 아이가 빠른 것 같다.

문연주 빠르다. 그림을 그려도 눈, 코, 입이 벌써 나온다.

윤선영 영아기를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다른 자료를 보자.

생 각지도 않게 정기 총회에 가게 되던 날... 출발 하루 전에 찬주생의 늦지 말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출발 5분전에 허겁지겁 부산역으로 달려갔다. 아나나 다들까 나만 빼고 다들 일찍 오셔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 추위가 한 풀 꺾이고 날씨는 포근했다.

기차의 출발과 동시에 다들 준비해 온 먹을거리를 꺼내 놓았다. 많은 얘기들이 오가며 설새 없이 먹기 시작했고, '사육 할 일 있습니까?' 하는 생들의 말이 몸으로 느껴졌다.

점심을 먹기 위해 1시간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말라는 부산지부장님의 경고(?) 하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1시간 동안 달려갔다.

여전히 배는 불렀지만 다들 조금도 남김없이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먹으며 서울로 향했다. 영등포역에 도착한 우리는 기차에서 내려 다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건설기술교육원에 도착했다. 여러 명이 움직이다 보니 목소리도 컸지만 '아~ 꼭 붙어 쫓아 다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머리 속에 떠올랐다.

교육원을 들어서는 순간 신입인 나에게는 너무나 떨리는 순간이었다. 부산지부 생들 이외에는 모두들 낯선 얼굴들뿐이었다. 고개깃으로 인사를 나누고 주위를 살펴보니 어리둥절하기만 했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도 고민이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신 생들 주위만 맴돌았다. 전시된 바자회 물품을 둘러보니 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본 행사에 들어갔다. 일정표를 훑어 보니 조별 토의가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 그 대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해 개회식이며 조직전망논의 경과보고 등은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다.

미리 조별 토의 질문지를 읽어보았다. 옆에 계신 찬주생에게 "생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잔뜩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대선배인 찬주생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낯선 사람들과 얘기도 잘 못하는 나로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다. 10문항에 대한 대답을 미리 생각해 놓으려고 고민을 했지만 별다른 해답은 없었다.

조별 토의시간에 들어가 어떤 조에 들어가는지를 본 순간 너무 기뻐했다. 다행히 부산지부의 다른 회원과 같은 조가 되었고 옆에서 든든한 힘을 주시는 찬주생과도 같은 조가 되었다.

짧은 시간에 각기 다른 지부의 생들과 10문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아 모두들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긴 토의 시간은 아니었지만 얼굴도 익히고 얘기도 주고받으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터

3기중외 및 겨울연수

한국보육교사회

보육교사회



전을 마련한 것 같았다.

조별 토의 후 느낌을 발표하고 공동체 놀이에 들어갔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방별 자유시간을 가점으로 첫째 날 일정은 끝났다. 대구지부와 같은 방을 쓴 우리는 같이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정담을 나누었다. 많은 얘기는 주고받지 못했지만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기혼한 샘들이 많아서인지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이 뜨거운 열기는 샘들이 잠자리에 들어서야 식혀졌다. 내일 일정을 위해 일찍 주무세요 라는 말을 뒤로 한 채 날 밤 아닌 날밤을 새고 말았다.

먹을 것이 모자라 이방 저방 얻으러 다니며 다른 지부 샘들과 인사도 나누었다. '나 신입대는 안 이랬다.' 라는 말을 수 없이 들으며....

1시간 정도 잤을까? 자, 일어나 식사하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둘째 날 일정은 여성주의시각으로 보는 통일과 한국사회라는 특별강연으로 시작되었다.

곧이어 정기 총회에 들어가고 우리는 중간에 기차시간 때문에 먼저 나오게 되었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나와 섭섭했지만 갈 길이 멀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영동포역에 도착해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기차에 올랐다. 졸음도 오고 몸도 피곤했지만 올라올 때와는 달리 한결 마음이 가볍고 뿌듯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 한 덩어리를 떨쳐 버리고 오는 것 같아 행복했다.

그리고 한국보육교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연장노석

2

가깝게 느껴진 총회

최현희 · 서울, 어깨동무어린이집

“안녕하세요. 저는 샘물반 최현희입니다.” 저로 말씀 드릴 거 같으면 2000년 새롭게 보육교사회에 가입한 소녀(?)이옵니다.

작년에는 오감 살리기, 전래동요교육을 배우며 보육교사회와 좀 가까워졌었지요.

올해 초에 전국총회를 한다고 하기에 “다른 지역의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궁금증으로 동암역으로 향했지요. 가도 가도 동암역은 왜 이리도 안나오는지... 가는 길 내내 ‘부산, 대구, 광주 등등 그밖에 지역선생님들은 정말큰맘 먹고 와야겠다.....’ 하는 생각과 은근히 그분들이 존경스러워 지더군요.

맛난 밥을 먹고, 벼룩시장에서는 3000원에 예쁜 액자도 사고... 첫 시간에는 각 지부 선생님들과 인사도 하고, 선배님들도 뵈고..... 보육교사회의 건장하신(?) 분들을 뵈니 왠지 제 마음이 다 든든하더군요. “선배님! 존경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보육교사회 -조별토의」 시간에는 매일 우리와 함께는 하지만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공기와 같은 생각들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통해 내가 왜 보육교사회에 가입했으며 나는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등등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 모든 선생님들은 같은 생각들을 갖고 어린이 보육에 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면 보육교사 선배님일수록 물음표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갈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지요.

저녁시간의... 그 야밤에 땀흘려 강강수월래를 하며 하나되는 우리를 보았습니다. 후담으로 어떤 지부에서는 늦은 새벽까지 결혼과 다이어트, 남자헌팅 했다가 거절당한 이야기, 화가 났을 때 진정시키는 쉬운 방법(한방에서 검증된 것임 - 즉효)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좀이 끼워주시지.....

다음날 아침 『통일교육과 여성』에서는 통일이 막연히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던 저에게 동독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실 때 여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의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는조건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통일이 새롭게 느껴지더군요.

역시 교사들에게는 끊임없는 재교육이 필요하네요. 못 들으신 분은 꼭! 이다음기회에 들어보세요!!!!!!



마지막 시간 — 총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보육교사회의 일들을 듣고 자극이 되었으며 한 사람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권리행사를 하니 드디어 나도 보육교사회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다 참여하신 지방에 계신 교사 여러분 정말수고 많으셨어요.
내년보육교사 총회 때 꼭! 꼭! 꼭! 다시 만나요!!!!!!

현장보식

3

이제야 저를 알아 주시는군요.

고정미 · 인천, 예술어린이집

우등상, 공로상, 선행상.... 등등 내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받았던 상들이 무수히 많지만, 2001년 한국보육교사회 총회에서 받은 '모범 회원상'은 그 어떤 상보다 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보육교사회 회원들에게 그 날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를 알아 주시는군요 ~해해..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분께 간단하게나마 안부의 편지를 전하고 싶은데 팬찮죠? 바로 최현숙 전 회장님이랍니다.

최현숙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고정미입니다. 저 상 땀거든요. 자랑하고 싶어서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왠지 낯설어서 그냥 회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워낙 버릇이 되어서....

팬찮죠?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연락처는 수첩 옮길 때마다 꼬박꼬박 적어 놓으면서도 연락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말입니다.

건강하시죠?

좋은 분들 많이 만나 심심치 않게, 즐겁고 신나게 지내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항상 등직한 모습으로 저희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잔잔한 미소로 항상 자상하게 모든 회원들을 챙기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보고 싶네요.

회장님! 기억나세요? 오래 전 햇살에 큰 일이 있었을 때, 저희들과 함께 밤을 새우면서 행여라도 저희들이 해쳐 나올 수 없는 패배감으로 일어설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시며 다독거리 주셨던 일 말입니다. 저는 문득문득 그 생각이 나요. 너무나도 감사했고 힘이 많이 되었지요. 지금도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보육의 현장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저희들을 염려해주시고 다독거리 주시며 힘든 시간을 함께 해 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상 받은 거 자랑하다가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네요. 기쁘다 보면 제일 어려웠던 시절이 떠오르나 봐요. 이해하시죠?

가끔 잠이 나면 저에게도 연락 한 번 주시고요, 인천에도 한 번 다녀가세요. 오시면 맛있는 '화'로 한 번 대접할게요. 근사하게~. 다른 분들 침 담으세요.

건강하시구요. 저 보고 싶다고 울지 말고요,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축하 전화 해 주셔도 돼요. 그럼 이만.....

신도림에 있었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사무실을 느닷없이 방문해 박성연 교육부장님께 일을 하고 싶는데 자리 있냐며 막무가내였던 그 때 그 시절 이후의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했던 나의 활동들을 이제 모두 다 고이 묻고 항상 거듭나는 삶으로 당찬 모습으로 살고자 합니다. 예쁘게 봐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로사샘의 아름다움

- 이춘희 선생님

92년 3월 자원활동가와 교사로 처음 만났었던 이춘희선생님(대구교사회에서는 세레밍 로사샘이라 부릅니다.)을 함께 활동하는 보육교사로 우리네 아이들에 소개하며, 손꼽아보니 10년이라는 시간이 꼭 찻습니다.

10년 동안 하나의 공간에서 하나의 활동을 변함없이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아 가는 요즘, 그래서 지금의 로사샘이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10년 후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상투적인 물음 하나?

❖ 쑥스럽지만 자기소개부터 해 주세요!

말띠(66년생) 아줌마로 딸 둘과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는 남편이 있으며, 감나무골어린이 집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이춘희입니다.

이례적인 물음 둘?

❖ 감나무골어린이집과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에 대해 소개 해 주세요?

91년 빈민지역 아이들을 위한 탁아방으로 시작한 감나무골 어린이집은 10년 동안 지역의 저소득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보육이상의 공간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린이집 차모들과 함께 지역독거노인을 위한 일반찬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지역활동을 하는 곳이 나눔과 섬김의 집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집은 지역주민센터로서 감나무골 어린이집, 공부방, 무료법률상담, 재가복지서비스, 무료한방진료실, 지역청소년모임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물음 셋?

❖ 감나무골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88년부터 신암성당 청년회 활동(주로 시설방문 및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후 모임 내에서의 평가를 통해 그간의 활동 즉 일회적인 시설방문활동에 대한 한계와 지역주민 속에서의 올바른 신앙과 봉사활동을 위한 삶을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해영, 용철 남매의 사고를 접하게 되었고 이후 진행 된 청년회의 지역주민 조사작업 속에서 지역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빈민탁아소로 청년회의 활동 방향을 잡으면서 곧바로 교사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막한 물음 넷?

❖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또는 소중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삶의 경륜이 쌓이면서 그 속에서의 삶의 깨달음과 배움이 늘 소중한 것 같습니다.

빈민과 함께 열심히 생활하고 노력했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려지고 소중한 가정들이 해체되는 모습을 봤을 때 활동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동시에 나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의 삶을 보면서 활동의 책임감과 보람 또한 많이 느낍니다.

아줌마에겐 당연한 물음 다섯?

❖ 결혼 이야기랑 남편 얘기 해주세요!

남편(류인성, 39세)은 88년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삶의 가치관에 대한 공통점으로 92년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활동가로서의 엄청난(?) 기대와 생활현실 속에서의 일반적인 남성의 모습 속에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는데 지금은 상호호변 속에서 서로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에게 무척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미혼은 모르는 물음 여섯?

❖ 결혼 후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어려운 점 혹은 좋은 점은?

좋은 점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향하는 올바른 삶을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노력들을 나의 활동과 사람들 속에서, 혼자가 아닌 둘이서,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부 혹은 부모의 역할 속에서 삶과 세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욱 성숙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혼여성이기 때문에, 육아 및 부부, 가족문제 등으로 인한 활동의 많은 제약들이 무척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들을 일정정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극복하려고 남편과 함께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혼이 궁금한 물음 일곱?

㉔ 올바른 결혼과 함께 더 나은 활동을 고민하는 후배 미혼교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결혼을 했을 때와 미혼일 경우 모두, 활동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삶과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며,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리고 부부가 함께 결혼 후 활동의 어려움 등을 극복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육교사로서의 자신과 삶을 소중히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결혼과 활동이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사경력 5년 미만이 궁금한 물음 여덟?

㉕ 지.탁.연부터 지금의 한국보육교사회까지 계속 활동해 오셨는데 후배교사들에게 꼭 하고 싶은 한마디는?

지.탁.연 시절의 교사들은 보육과 아동 그리고 그 속에서의 자신의 삶과 활동에 대한 원칙과 신념이 확고했었는데, 지금은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은 더욱 발전을 했지만 그 부분은 좀 미약하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삶의 가치관과 보육활동에 대한 신념을 탄탄히 세운 보육교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마다 아는 물음 아홉?

㉖ 2001년 선생님의 소망과 계획은?

감나무골 어린이집에서 시작한 지역활동이 10년을 맞이합니다. 그 10년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이후의 10년을 잘 준비하는 2001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 문제로 너무 힘들었던 지난 한해로 인해 올해는 정말 우리가족이 건강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물음 열?

㉗ 한국보육교사회에 한마디 한다면...

사람을 통한 조직의 발전을 알기에 늘 미안하고, 지난 10년의 역사와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기에 한국보육교사회의 소중함을 압니다.

지켜야 할 것과 변해야 할 것이 너무나 혼란한 지금, 한국보육교사회가 탄탄히 뿌리 내리고 가치를 뽐어나갔으면 합니다.

인물탐방기 2

박인혜 · 서울, 씩씩이 어린이집

여전히 청춘이다.

이경녀 선생님

아직은 흐릿한 형상을 띠고 있겠지만 조금씩 윤곽이 뚜렷해지겠지요.

봄이라 불리우는 봄 말입니다.

여기 봄내음 만큼의 상큼함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을 훌쩍(?) 넘어가는 나이임에도 아직도 20대 초반의 정서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여인.

노래방에 가면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한 가닥 뽐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여인.

그 나이에 스스럼없이 펌프 앞에서 멋지게 스텝 밟는 여인.

술이 지나해지면 가뜩이나 잘 안 되는 '리' 발음이 더 꼬이는 여인.

진한 사랑 하나 올해 안에 기필코 하리라 굳게굳게 마음 속 깊이 소원하나 간직하고 있는 여인.(무척이나 바쁜 사람이라 그 소원 이루어질지 매우 염려스럽군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디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의 여인은 나의 동거녀였었습니다.

눈뜨면 옆에 그녀가 있었고 밥상을 마주 하는 사이였고 같은 곳에서 일하는 출근 길, 퇴근 길 길동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4년여를 같이 살았었습니다.

3년 전 여름 그 사건(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그녀에게 직접 알아보십시오. 차마 제 입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보다 큰 용지를 품고 지금 그녀는 서울시 중구 창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에 책상 하나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윤경 대표님~~이 아니고 이경녀 사무국장~ 입니다.(생생한 멘트가 필요함.)

일 있을 때마다 보고, 술 한 잔 하고픈 일 있으면 불러내곤 하지만 언제나 내가 필요로 한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녀의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그녀가 늘 선배 같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으로 간지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녀의 힘듦, 생각, 희망 같은 걸 진지하게 나누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지금 이 순간 머리 속을 채우고있는 생각은?

속스럽네요. 나에 대해 이상한 애길 써 놓았으면 무자게 잘라내려고 가위 옆에 두고 글을 읽자니 새삼 인해 언니 글 속씨에 놀라고, 민망하고 그러네요. 이건 느낌이지? 생각이라....

빨리 원고 넘기고 다른 일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 후원계는 또 어찌 꾸리나 하는 생각. 내일은 뭐 해야 하나 하는 생각. 오늘은 신간 만화가 나와 있으려나 하는 생각 암튼 요즘 제 머리는 조각조각 나뉘어져 시간이 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달라요.

사무국장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는... 이건 힘들다기보다는 좀 미안한 일이에요. 회원들한테 일 부탁할 때가 좀 힘들고 미안해요. 뻔히 아이들 보느라 힘든 걸 알면서도 계속 일을 요청해야 할 때가. 특히 지부 간부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일을 요구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놀랍기도 해요. 늘 고맙죠. 회원들이나 지부간부들이나 씩씩이 식구들이나(씩씩이한테는 특히 제가 더 뻔뻔하거든요. 친정이라는 뻔뻔). 원고면 원고, 동원이면 동원, 후원이면 후원 요청할 때마다 오히려 제 때 못해줘서 미안해하는 그들을 보며 미안하고 그래도 요청해야 하는 제가 밟고....

둘째는 현재 상근자가 둘밖에 없어서 일이 좀 많다는 거죠. 일이 양적으로 많은 건 아닌데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일을 하려니 깊이가 떨어지네요. 그러나 곧 교육 담당 상근자가 올 예정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되겠지요.

셋째는 역시 재정문제이지요.

뭐, 사람 얘기 나왔으니 그 다음엔 역시 돈 얘기가 나오네요. 중앙에 있으니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늘 돈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는군요. 그러나 일을 벌리면 돈이 들어온다는 적극적인 사고로 열씨미 할랍니다.

사무국 일을 하면서 현장교사 시절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선, 컴맹을 탈피 했구요. 히히. 많은 자극을 받았어요. 여러 회원들을 만나면서 예전보다 더 현장의 소중함을, 보육교사로서의 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가면 정말 좋은 교사가, 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갈 거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많이 지치고 힘든 분이 있다면 중앙에 와서 일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분명 새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현장교사로 복귀한다면 어떤 교사일는지?

우선 예전의 악행(?)은 다 털어 버리고 좀 더 여유있고(몸 말고) 인자한 교사이고 싶어요. 목소리 톤도 낮추고 천천히 얘기하고,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자주 나가고, 공부하는 교사이고 싶어요. 중앙에서 일하면서 배웠던 교육활동도 펼치고 싶구 (전 지난 2년간 여러 강좌와 오감살리기 소모임에서 공부했는데 지금도 현장에 가서 아이들과 활동하고 싶어 종이 쭉셔요. 안 하면 다 잊어버릴까봐.) 무엇보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교사이고 싶어요. 지금도 말이 많은데 말 수를 조금씩 줄이는 연습을 해야 겠네요.

최근 가장 행복했던 일이 있었다면?

처음 중앙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오고 기쁨이 넘쳤는데 이젠 일상이 되어서 그러나요? 그냥 총회 때 회원들 만나면 좋고, 수련회에서 지부소개 시간 내내 웃겨서 눈물이 났어요. 아, 기원언니랑 찬주 언니랑 총회 끝나고 설악산에 여행 갔는데 그 여유로움이 너무 좋았어요. 또 가고 싶어----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소망은?

우선 영유아보육법이 꼭 개정되었으면 좋았고 사무국장으로서 올해 새로 들어오는 교육간사와 힘모아 맘모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 조직 중장기 계획 잘 만들어졌으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감성을 풍부하게, 몸을 가볍게 하고 싶어요.

💡 끝으로 소망하고 있는 연애의 조짐은 보이는지? 아니면 연애를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과 작전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너무해! 약을 올리는 거야, 잘 하라고 격려하는 거야? 아예 내 복장에 불을 질러라, 질러. 작전은 무슨 작전 그냥 인물과 성격으로 밀고 나가는 거지. 가끔 사람들 보면 특이한 취향 가진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1월 눈이 무지무지 많이 오던 그 때가 생각납니다.

마침 쉬는 날이라 사진 좀 찍을까하는 생각에 카메라가방을 메고 나선 길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눈에 카메라를 들이댈 수가 없어 어쩔까 하다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장충동 사무실에 낮 시간에 찾아 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2시간여를 있었습니다.

컴퓨터 자판기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치고 중간중간 전화 받고 전화하고(통화 한번에 10분 이상씩 걸리더군요) 설 틈 없이 바빠 돌아가는 사무실에 우두커니 책 보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에 파묻힌 그녀의 모습이 마냥 아름다워 계속 내리는 눈이 귀찮기보다는 고마웠습니다. 그녀의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서.

Q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는 말은 조리 있게 잘 하고 표현도 잘하는데 발음이 좋지 않아서 남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발음교정을 해주어야 할까요? 혀가 짧은 것 같지는 않은데 걱정입니다. 발음이 좋지 않은 것도 지능과 관련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홍은소아과 김우성입니다. 아이가 발음이 좋지 못하다면 혹시 해부학적인 혀가 짧은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가

장 중요하구요. 그렇지 않다면 조음언어의 장애가 약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음장애란 모음과 자음을 포함한 말하는 데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청각 운동행위의 일종으로 후천적으로 배워지는 것입니다. 아이는 말하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결합되는지 배우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변합니다. 아이는 말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지 알게 될 뿐 아니라 어떻게 구강, 코, 후두를 협응시켜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이에 더해 아이는 소리를 조절하게 되고 고유한 문법적 특징을 가진 표현체계도 배우게 됩니다. 모든 말하기의 습득은 8세가 되면 완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에 따라 습득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조음장애를 검사할 때는 여러 가지 말하기의 잘못된 만 아니라 소리에 이상이 있는지, 정보가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고 실패하고 있지 않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조음장애는 4가지 정도의 말하기 잘못으로 나눌 수 있다. 대체("바람"을 "

어린이와

건강

육아상담 Q&A

편집부

이번 호에는
고시환 소아과(<http://glph.co.kr>)의
의료상담실에 들어온 육아 상담과
답변을 소개합니다.

바답"이라고 하는 경우), 생략("물"을 "무"라고 하는 경우), 첨가("두사람"을 "둘사람"이라고 하는 경우), 자음이나 모음 자체의 이상("새"를 "세"라고 하는 경우) 등의 잘못이 그것입니다. 구음장애의 심한 정도는 잘못된 형과 빈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음의 고저와 강세의 잘못으로도 올 수 있는데 이때는 신경학적 질환으로 인한 말장애에 나타납니다. 지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장애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조음장애의 원인은 너무나 많고 일부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복합된 원인이 함께 작용하기도 하는데 토순, 뇌성마비와 관련된 말장애, 특수한 언어장애가 있을 경우 조음장애는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음 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영아나 소아기 초기에 양측 감각신경형 청각이상이나 만성 중이질환(중증 중이염, 내이골의 기형)같은 청력장애, 토순, 구개열, 심한 치열부교합, 혀의 비대 그리고 혀의 경직 등과 같은 구강내 구조질환, 중추성 및 말초성 신경계 질환(예, 구강근육의 심한 부조화, 위축 혹은 경련 등)으로 인한 말장애, 말하기를 위한 구의지적인 구강운동의 중추신경성 장애, 이 경우에는 구강운동의 기능, 움직임, 긴장도, 힘 등은 정상적입니다.

비록 위축이나 경련은 없지만 아이는 정확한 말하기나 말의 배치에 있어서 구강근육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조음장애가 경하게 또는 중등도로 있을 경우에는 전통적인 치료방법으로 정상적인 말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지기능이 제한된 심한 의사소통 장애나 심한 신경운동성 말장애가 있는 아이에게는 보조요법이나 강화요법이 포함된 의사소통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체계는 의사소통 기구의 형태(의사소통판, 차트, 컴퓨터프로그램 등)나 수화나 제스처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치료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지적 능력, 신경운동의 상태, 언어문법에 대한 지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사용자와 환경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강화된 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씩만 나타나는 경우 정확한 진찰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하고 놀 때 때릴 줄을 모릅니다.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맞고도 대응을 안하고 맞기만 하니까 아이들이 계속 때리더라구요. 다른 아이들까지 켜 맞기만 하는 애니까 하면서 계속 때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있어도 그런데 이제 곧 유치원에도 가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데리고 다닐 수도 없구요. 어려서 그럴 때 제가 왜 우냐고 하니까 이제 울지도 않고 입술만 다물고 울음을 참고 맞고만 있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제가 말리긴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기보다 어린애들한테도 잘 맞고 때리지도 못합니다. 소극적이어서 그럴까요. 지능이 낮은 걸까요. 책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 보면 다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집에서는 성질도 부리고 동생도 잘 때리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왜 맞기만 하냐고 물으면 무서워서

그렇다고 다음부터는 때린다고 하지만 항상 똑같습니다. 맞기만 하고 때리지 말라고 말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홍은소아과 김우성입니다. 집안에서는 발달하게 노는데 한 발 밖으로 나가면 낯을 가리거나, 친구사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가 일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제의 수가 줄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고, 밖에는 위험이 가득하구요. 방 안에서 혼자 노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무리를 지어서 집단적인 놀이를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일이 적어지고 있고, 어릴 때부터 어른들만의 세계에서 자라고 집단적인 놀이의 경험이 적은 아이는 아무래도 소심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거기다가 부모가 아이의 하는 일마다 하나하나 참견을 하는 것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행동력이 좀처럼 몸에 배지 않는 것이지요. 너무나 온순하기 때문에 수영클럽이나 체조교실에 보내서 사회성을 몸에 익히려는 부모도 있는 모양이지만 무리하게 집단에 길들이려고 하면, 더욱더 껍질 속으로 틀어박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소심한 아이는 무슨 일에 대해서도 착실하고 진지하게 대어들기 쉽습니다.

과제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든 지시 받은 대로 해내려고 하고, 그 때문에 더욱 긴장이 높아 지고 집단의 즐거움을 체험하기 전에 집단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긴장감, 불안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조금해서 억지로 과외 공부에 끌어보내기 전에, 먼저 아이의 자발

성, 자주성을 기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못써!"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 라는 말로 아이가 이제부터 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앞질러서 참견하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어머니 아래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발성, 자주성을 뺏기고 말기 쉽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한테 말기고 아이의 힘을 믿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가령 소심한 아이라도 매사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호기심이 강한 아이는 그러다가 친구도 생기고 조금씩 친구들과 사이에 끼어들게 됩니다.

친구사이에 끼어 들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이, 언제나 혼자서 쓸쓸한 듯한 아이에게는 먼저 어머니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함께 밖에 나가서 친구의 어머니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피크닉을 가는 등의 즐거운 접촉을 쌓아 가는 동안에 저절로 친구에 대한 친근감을 키우게 됩니다. 무슨 일이고 무리는 금물, 안심할 수 있는 친구나 집단에 접촉해서 날마다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저절로 소심한 성격은 고쳐질 것입니다.

어린이 화재안전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정선아 · 한국의국어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사

아래의 글은 (사) 한국안전생활교육회와 (재)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주최한 제1회 아동안전 학술 심포지움 및 워크숍의 자료집에 실린 글입니다.

프로그램 평가연구는 독자가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리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지고, 수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평가자나 연구자의 역할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자연스러운 일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재인용, Stake & Tumbull, 1982, p.2, Shadish, Cook, & Leviton, 199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유아안전교육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안전교육의 내용을 안전에 대한 지식, 안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기술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곽은복, 2000; 장영희, 정미라, 배소연, 1997; 한국산업안전공단, 1995). 이러한 구조화에는 행동주의 학습이론이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유아의 안전에 대한 지식은 태도 그리고 기술로 이어지지 않을 때 학습의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유아의 지식이나 태도는 안전행동이나 기술을 학습하는데 기초는 되지만 실제행동 또는 기술로 이어질 수 없다는 논리를 담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안전교육은 유아의 인지발달특성에 대한 피아제의 이론에서 그 논리를 더욱 견고하게 한다. 피아제에 의하면 전조작기 시기의 유아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자신과 세계를 분리시켜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으며, 여전히 사물의 조작에 의한 생물학적 적응과정을 거친 지식의 구성과정에 있다(Donaldson, 1978). 즉 유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

해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정신능력의 부족하다고 있다. 피아제는 물론 유아에게 성인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으나 그 지식은 유아의 지적능력의 발달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인지적 미성숙에 대한 피아제적인 관점은 유아가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정신능력이 있다는 관점의 안전교육을 제한하여 왔다.

유아의 인지적 미성숙에 대한 이해는 안전교육이 지식위주의 전달교육이 되어서는 안되며, 유아가 안전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활동 중심의 안전교육을 하도록 강조하여왔다(곽은복, 2000; 장영희외, 1997). 안전교육의 방법 가운데에서도 실제와 유사한 모의상황, 역할놀이, 모델링, 시연 등을 통해서 이루어 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곽은복, 2000; 장영희외, 1997).

그러나 대집단의 토의와 같은 언어중심의 교수법이 유아의 정신을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후기 피아제학파를 중심으로 유아의 조망능력이나 자기 중심성은 유아의 언어가 유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라는 사실을 간과한데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아의 언어가 어떻게 유아의 정신을 주도하는지를 보여주었다(Graue & Walsh, 1998; Vygotsky, 1978). 유아는 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하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수정 보완하여 나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아의 정신능력은 사물과의 구체적인 조작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대화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대화를 통해 유아의 생각은 조절되고 확장되어가고 있다. Donaldson(1978)의 지적처럼 "교육은 대화의 확장"(p. x)이어서 "학교에서 지식은 대화 속에서 보여지고, 나누어지고, 전달되고 교환되거나, 구성된다"(홍용희, 1998, p. 84). 유아학급에서 대화를 통한 지식의 구성은 유아를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참여시키며, 교사는 유아의 지식을 확장하고 심화시켜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홍용희, 2000).

그리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역시 아동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측정이나 조사로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아동의 변화는 측정 가능한 행동, 지식의 변화로 측정되었다. 아동이 프로그램의 어떠한 과정에 의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가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동원시켜야 했다. 물론 프로그램개발이 어떠한 방식이 가장 아동에게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이 여러 사람이 이를 적용하고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아동에 대한 효과나 프로그램의 내용의 구체화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원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의 이해가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평가에서 보여질 때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 사용자에게 적용보다는 적용의 의미를 평가에서 되새겨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안전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따른 유아의 사고나 행위의 변화는 물론 프로그램의 어떠한 적용과정이 유아의 안전에 대한 사고나 행위에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탐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안양에 소재하는 사립E유치원의 초록반 이미정교사와 7세 유아 19명이었다. 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대학 부속유치원에서 근무하였다.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 석사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원감이지만 답임을 하고 있다. 이 교사는 교수경력이 많고, 우수한 교사로 인정받고 있어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1) 화재안전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화재안전프로그램의 내용은 "불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요"라는 주제로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한국안전교육생활교육회에서 기존 개발된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화재안전교육(1995)'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한국안전교육생활교육회로부터 받아 유아에게 맞게 이 교사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먼저 교사는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안전전문가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 주제망을 구성하였다. 소주제로는 불조심, 불이 날 수 있어요, 불이 붙을 수 있어요,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불이 나면, 도와주세요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소주제에서 다시 하위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주제망(그림참조)에 기초하여 교사는 2주에 걸친 주간계획을 작성하였다. 각각의 소주제는 일일의 주제로 또는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2000년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 동안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사에 의해 주도되었으므로, 적용과정에서도 교사의 주도아래 프로그램의 활동이나 자료들이 수정, 참가되었다.

(2) 자료분석

본 연구는 화재안전프로그램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기존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아동의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화재안전지식과 대피행동의 검사도구는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화재안전지식 하위내용에는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연기가 집안에 가득 찼을 때, 라이터를 발견했을 때, 성냥의 보관장소, 화상시 행동, 교실을 빠져나올 때, 목욕시 행동, 난로 앞의 행동, 불이 났을 때 도와주는 사람, 화상을 입었을 때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내용을 안전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두 가지 행동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자는 유아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답을 찾도록 하였다. 맞는 답에는 1점 그리고 틀린 답에는 0점을 주어 수량화하였다.

화재대피행동 검사도구의 하위내용은 등에 불이 붙었을 때, 불이 났을 때 방문을 열고 나가는 방법, 유치원에 불이 났을 때, 손을 데었을 때, 연기가 날 때의 대피, 부엌의 가스렌지 위의 냄비가 타고 있을 때, 방밖에 불이 났을 때, 높은 곳에서 불이 났을 때, 내가 방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 불이 났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 소방서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유아에게 주어지고 유아는 이에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검사는 유아와의 일대일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각의 검사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게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에 사전검사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2주 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화재안전지식검사는 점수화하여 사전과 사후검사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화재대피행동의 검사는 유아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유아의 화재 안전에 대한 지식과 행동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교사의 교수, 학습활동이 어떻게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유아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관찰과 면접의 질적 연구가 병행되었다.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2주간 연구자 3인이 모든 활동을 관찰, 녹음, 비디오로 촬영하여 자세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생성하였다. 유아와 교사에게 비구조화된 면접이 실시되었다. 총 40시간의 관찰과 비디오촬영 테이프를 전시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유아의 활동결과물과 교사계획안 등 모든 자료가 수집되었다. 모아진 자료는 교사의 교육적 의도가 담긴 교수학습활동의 경향을 범주화하였다.

III. 유아의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의 변화

1. 화재안전지식

유아의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과 대피행동의 지식의 변화를 재는 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에서 옷에 불이 붙었을 때와 연기가 가득 찼을 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한 두 항목에서 맞는 응답보다 틀린 응답이 각각 77.8%(14명)과 66.7%(12명)으로 많았으며 이 외의 항목에서는 맞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사후검사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틀린 응답이 없었다. 비교집단의 사전검사에서 역시 옷에 불이 붙었을 때(64.7%), 연기가 가득 찼을 때(11%), 그리고 화상시 안전행동(55.8%)에서 틀린 응답의 비율이 높았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옷에 불이 붙었을 때의 경우에서만 틀린 응답비율(62.5%)이 높았다.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화재안전지식 총점의 변화를 집단간 비교한 결과는 실험집단의 지식총점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있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프로그램의 실시가 유아의 화재안전지식의 내용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화재안전대피행동

안전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대피행동에 대한 지식을 조사하여 내용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비교집단보다 실험집단의 화재대피행동의 인식이 변화하였다.

〈표1〉 화재안전지식의 집단간 차이

	집단구분	평균	t값
사전검사	실험집단(N=18)	7.94(.87)	1.776
	비교집단(N=17)	7.24(1.44)	
사후검사	실험집단(N=17)	9.76(.44)	5.688***
	비교집단(N=16)	7.75(1.39)	

예를 들어 비교 집단과 실험집단의 많은 수의 유아가 등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사전검사에서는 물을 뿌린다고 응답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실시 후 실험집단의 경우 토의와 활동을 통해 알게된 "멈춰요, 엎드려요, 뒹굴어요"라고 응답하였고, 방에 연기가 들어오고 있을 때 대피하는 방법에서 역시 창문으로 보거나 문을 열고 나간다는 반응에서 "손가락을 살짝 문에 대보고 뜨거우면 불이 가까이 있고, 안 뜨거우면 불이 가까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는 반응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화상을 입고 데었을 때도 사전검사에서는 약을 바른다거나 가장 많았으나 "찬물에 대고 문지르지 않는다"의 반응으로 변화하여 프로그램을 받은 유아의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은 물론 대피행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IV. 화재안전교육에서 이야기나누기의 의미

(1) 전형적인 일과에서 이야기나누기

초록반 이미정 교사의 학급의 전형적인 일과는 다음과 같다.

9:30-10:30-40	출석 및 이야기나누기
10:40-11:50-12:00	자유선택활동
12:00-12:25	새로운 활동
12:30-1:15-20	점심과 자유선택활동
1:15-1:50	새로운 활동 두 가지

화재안전프로그램이 진행되는 2주 동안 이미정 교사와 유아의 이야기나누기는 유아에게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리라는 예측을 하게 하며, 이야기나누기의 주제와 관련지어 유아의 활동이 연결되도록 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야기나누기로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끝을 맺었다. 매일 이야기 나누기는 그날의 주제나 유아와의 대화의 내용이나 유아의 참여에 따라 40분에서 1시간정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이야기나누기 시간 동안 교사가 구성한 주제망이 주제에 의해 유아는 이끌어지게 되고, 이야기나누기 시간은 교사와 유아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서로의 이해를 확인하고,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교사는 이야기나누기 시간외에도 대부분의 활동에서 이야기나누기로 활동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나눈다. 예를 들어 이야기나누기의 대집단시간은 게임, 동화 읽어주기, 동시, 노래부르기, 출석 부르기, 동극, 바깥놀이, 세소식 등의 다양한 활동에서도 이루어진다.

초록반의 이야기나누기 시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는 교사의 주관성도 작용하고 있다. 이미정교사는 이야기나누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이야기나누기의 과정

초록반 이 교사는 이야기나누기의 전과정에서 "비계설정", "의미의 협상", "문화적 표상의 전달"의 교류를 통해 이야기나누기를 단순한 교수이상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든다 (Bruner & Haste, 1987, p. 21). 비계설정은 성인의 지도나 능력 있는 또래와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통해 학습하고 발달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의미의 협상을 통해 교사는 계획한 교수와 학습을 유아와의 대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따라 그 의미를 계획을 조정하면서 의미를 협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야기나누기에서 교사는 집단을 잘 운영하고 집단의 역동성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초록반의 이미정 교사의 이야기나누기 과정을 살펴보면 인사나누기, 다양한 방법을 통한 출석 부르기,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새활동 소개, 해산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유아는 두 줄로 바닥에 앉고, 한 줄은 뒷자리의 의자에 앉게 된다. 교사는 의자에 앉게되며 무릎보다 낮은 반원의 테이블을 자신의 앞에 두고 그날 이야기나누기에 필요한 자료를 두게 된다. 출석 부르기는 교사가 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는 작업이지만 이 교사는 출석을 부르면서 각각의 유아를 감정을 살피고 유아의 하루일과가 어떠할 지를 느끼고 있었으며, 또한 교사는 학급에서 유아가 집단에서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을 준비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유아는 출석에서 어제 집에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침에 집에서 있었던 일, 자신이 가지고 온 이야기 거리를 말하게 되고 교사는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서 유아들을 통해 학급 밖의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출석 부르기를 마치고 교사는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로 이야기를 넘기게 된다. 이 교사에게 출석 부르기는 단순한 유아의 출결을 의미하지 않고 이야기나누기를

위한 유아와 교사의 준비시간이었다.

모든 이야기나누기에서 이 교사는 "맥락화 신호 교환하기"(홍용희, 1998, p. 102)를 통해 이야기나누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맥락화 신호란 "대화의 의미와 기대되는 행동을 알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단서들을 말한다"(p. 103). 맥락화 단서를 통해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 나누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하며 이해하며 대화에 참여하게 한다. 이 교사는 맥락화단서로서 유아의 반응에 대한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보여 유아가 이야기나누기의 흐름을 따라가며 주의를 기울이게 도와준다.

또한 이교사는 맥락화 신호를 가정에도 보낸다. 즉 부모들이 유아의 학습에 관심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부모와의 대화를 통한 유아의 경험이 구성되어 올 때 이야기나누기의 과정이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이 교사는 유아가 집에 가기 전에 다음날 하게되는 이야기주제에 대하여 유아에게 이야기하고 가정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교사 오늘 우리가 뭐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더라. 주말 지나서 너희들 다 잊어버리고 엄마가 준 편지만 달랑 들고 왔어. 대피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유아들 알아요함께 말한다)

은태 불이면 피하는 거요.

교사 음 맞아. 피하는 거. 불났을 때도 대피를 하지만 또 다른 위험한 일이 있었을 때도 피하는 걸 대피라고 하지. 그런데 우리 유치원, 집에서 피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엄마한테 뭐 이야기들은 거 있니?

현지 피하는 거요.(2000년 9월 25일 관찰)

또한 이 교사의 이야기나누기는 유아에게 보이지 않는 일정한 유형으로 진행되어진다. 이야기의 주제에 대한 인식, 주제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의 모색, 유아경험과 주제의 연계, 문제 해결상황을 묘사하고 다시 방법 찾기, 정보주기, 유아의 시연, 교사의 요약,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활동의 소개로 구성된다. 각각의 방식은 또 매일의 주제에 따라 유아의 경험에 따라 다른 상호작용을 듣고, 유아의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질문을 통하여 유아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명료화하며, 질문을 통해 유아의 사고를 자극하여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고, 심화하고, 확장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한다.

위의 관찰 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제의 인식은 이야기의 주제에 대하여 유아가 가정에서 알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른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허용하면서 시작된다. 이렇게 주제에 대하여 교사와 유아, 유아와 유아간에 이야기가 나누어지면서 유아와 교사는 공동의 화제 또는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문제 인식과정에서 또한 교사는 유아의 이야기 가운데 공동의 화제가 되는 이야기 거리는 다시 한번 전체 유아들에게 환기시키면서 주제의 전개를 시작한다. 다음은 주제전개에 대한 관찰의 예이다.

교사 그래 불이났을 때 피하는데, 너희들 집에 불이났으면 어디로 피할 거예요?

은태 창문이나 문으로요.

교사 창문이나 문으로 피해요. 근데 현지는 5층에 사는데.

현경 옷장에 숨어요.

교사 옷장에 숨을 것 같아요.(웃으면서)

철은 옷장에 숨으면....(말을 흐린다)

교사 현지네 집은 5층이었는데 매들이 5층에서는 어떻게 피하지?

호재 비상구

교사 몇 층?

은태 우리 집은 20층이에요.

교사 와! 놀라는 표정으로) 20층에 있어? 5층도 높은데, 20층이면 더 높은데.. 그러면 5층에서 피할 때 어떻게 할까?

경연 엘리베이터 없으면요 비상구계단으로 피해요.

교사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가서 피할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경연이가 엘리베이터 없으면 계단으로 내려간다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탄대요.

은태 엘리베이터는 기계문이라서 위험해요.

교사 어, 은태는 엘리베이터는 기계문이라서 위험하대.

(유아들 웅성웅성 이야기한다)

교사 (사다리 그림을 보여준다) 사다리가 있네.

현경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유아들 아니야 내려가요.

교사 현경이처럼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니?

호재야 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해줄래?

호재 아래가 불났으며 위로 올라가요.

(중간의 사다리의 위험에 대한 유아간의 상호작용 생략)

교사 너희들 생각이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너무로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 줄이 흔들흔들거릴 수 있는 쇠로 된 것 같기도 하지. 그런데 튼튼한 거. 너희들이 수영장 올라갈 때 계단 그런 걸로 만들지.

유아들 쇠, 쇠로

(중략)

위의 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제의 인식은 한번의 이야기로 되지 않고 대피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방법과 함께 문제의 인식은 더욱 심화되고 확장되어 간다. 교사의 역할은 이야기나누기에 참여한 유아가 공유된 이해에 도달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아의 반응을 지

원하고 다른 유아의 반응을 이용하여 유아들이 다음 단계의 생각을 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교사는 상호작용을 따듯하고, 반응적으로 언어적 단서(놀라는 표정, 웃음 등)를 사용하면서 유아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한다(Berk & Winsler, 1995). 그리고 교사는 유아를 근접 발달지대에 머물게 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난지시 그리고 암암리에 유아의 활동을 구조화시킨다(현지는 5층에 사는데와 같은 질문 그리고 사다리 그림의 제공). 교사는 유아의 생각을 구조화하도록 과제를 세분화하여 준비하여 유아의 자신의 근접발달지대 안에서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사는 유아에게 모든 답을 제공하기보다는 유아의 반응에 따라 도움의 양을 조절하면서 교수의 양을 조절한다. 예를 들어 불에 대피하는 방법의 하나인 비상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먼저 비상구의 그림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비상구 그림은 유아의 대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모으게 하고 비상구에 대한 공동인식의 수준으로 이끌고 비상구에 대한 이해를 위한 토의과정에 들어간다. 그리고 교사는 유아간의 상호작용을 허용하고 유아의 자신의 경험 속에서 새로운 혹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이해하도록 유아의 경험을 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유아의 집에서 본 비상구에 대한 기억을 하게 하고 이야기 나누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의 반응은 명료화, 심화, 확장되어 비상구의 의미는 물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비상구를 자신의 시야 안으로 넣게 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예: 호재는 교실을 돌아보다가 문쪽의 비상구를 발견한다 등).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는 자신의 이해수준과 그리고 공동의 이해를 디딤돌로 화재안전에 대한 자신의 이해수준을 발달시켜간다.

초록반의 이야기나누기는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그치지 않고 유아의 시연이 자주 포함되게 된다. 대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에서 교사는 유치원 안의 비상구표시가 되어 있는 지도를 보여주고 불이 났을 것을 가상하여 대피훈련을 하게 한다. 대피를 위하여 어떤 길로 대피하여, 어디서 만날 것인지를 먼저 약속하고 대피훈련을 하였다. 이러한 시연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이나 다른 활동시간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대피에 대한 이해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이야기나누기를 마치면서 오늘의 이야기주제에 대한 중요한 점을 요약하고, 새로운 활동을 소개한다. 새로운 활동의 소개는 단순한 새로운 활동을 알려주기보다는 각 활동이 오늘의 이야기나누기 주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유아에게 기억시키는 역할을 한다. 교사의 교육적 의도를 유아에게 전달하여 유아의 활동이 교육적이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초록반 이 교사의 이야기나누기는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리를 가지고 유아와 교사가 공동의 이해에 도달하는 협의의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유아는 공동의 이해과정 속에서 자신의 화재안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확장하여간다.

이야기나누기의 과정은 화재안전프로그램의 효과를 최적화하는데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교사는 이야기나누기를 통해 유아와 공동의 이해에 도달하였고, 유아의 모든 활동이 이야기나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조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아의 화재 안전에 대한 이해는 확장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V. 매개체(mediator)의 의미

초록반의 이야기나누기가 유아를 근접발달지대에 머물게 하면서 지식이 대화 속에서 보여지고, 나누어지고, 전달되고, 수정되는 과정이라면, 매개체의 활용은 유아의 사회적인 혹은 집단적 지식을 견고하게 하고, 이 지식이 개인의 발달수준으로 들어가 개인내의 발달수준(Vygotsky, 1978)을 이루도록 하는 교사의 계획된 교수 과정이다. 초록반의 이 교사는 매개체의 활용을 유아의 표상활동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지만 자신이 준비하는 교수 매개체를 이용하는 활동이 유아의 사고를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매개체는 단순한 유아의 표상활동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환경적 자극과 그 자극에 대한 반응 사이의 매개수단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을 말한다"(Bodrova & Leong, p.126). 비고츠키에 의하면 유아는 언어 또는 외적인 매개체의 도움을 받아 유아의 사고와 반응을 연결하여 자신의 정신을 발달시켜나가게 되므로 매개체는 교수와 학습에서 주요한 정신의 도구가 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매개체의 활용은 유아의 지식의 심화와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주 동안 화재안전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매개체의 활용은 이야기나누기의 경우 그림자료, 동화, 사진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새로운 활동은 매개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몸이 붙었을 때의 매개체를 이용한 활동은 불꽃그림이란 외적인 매개체를 몸에 달고 이를 떼는 게임, "멈춰요, 엎드려요, 굴러요." 언어적 매개체를 이용한 동시, 돋보기로 불 만들기의 외적인 매개체 사용한 불의 성질 이해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매개체를 활용한 활동에서 유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극과 이에 대한 주어진 반응 사이에서 매개체의 활용은 자신의 사고와 반응을 의미 있게 연결하여 갔다. 불꽃매기의 게임에서 게임에 참여한 유아는 외적인 매개체인 불꽃을 떼면서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였고 동시에 다른 유아와 함께 입 즉 언어라는 매개체로 "멈춰요, 엎드려요, 굴러요"를 소리내어 혹은 혼잣말로 하면서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였다. 이 활동이 끝난 후 유아에게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철은이는 "정말 뜨겁더라"며 경연을 바라보고 말했고 경연이 역시 이에 수긍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러한 외적인 매개체의 활용은 유아의 언어라는 매개체와 동시에 이용되었고 유아의 반응을 의미있게 그리고 유아의 지식구성에 적극적인 역

할을 하였다.

따라서 외적인 매개체의 이용도 유아의 반응을 의미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유아의 언어라는 매개체가 동시에 사용될 때 더욱 반응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유아의 언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화재 안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고 이해해 가는 발달과정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에 들어가 가족에게 학급에서 들은 동화를 전달한 내용(가족이 유아의 동화전달을 그대로 기록함)을 보면 유아의 화재안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구성되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제목 : 만지면 안돼요

임현지

아름이가

"앗! 뜨거"

소화기가 아름이한테

"왜 그러니?"

다름이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줬어요

소화기에게

"아름이가 성냥을 만졌어. 그래서 불장난을 했지"

"아! 그렇구나"

성냥하고 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우리 갖고 왜 불장난을 하는 거야? 우리를 만지면 손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배꼽도 다치고 몸을 다 다치게 될텐데 우리를 왜 만지는 거지? 우리 친구를 소개해 주자"

불꽃이 나와서 이야기 해 줬습니다.

"나를 쓰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가 만지면 큰불이 날 수가 있어"

불꽃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촛불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켜면 깜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나를 켜뜨리면 큰불이 날 수가 있어. 어린이는 날 만지는 것이 위험해. 날 건드리지마."

이번엔 가스렌지가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켜면 맛있는 돈까스도 하고 고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를 건드리면 큰불이 날 수가 있어. 너희 어린이들은 특히 건드리지마"

이번에는 난로가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차가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내 근처에 인형이나 너희들이 있으면 안돼. 내 근처에 있으면 옷도 인형도 탈 수 있고 큰불이 날 수가 있어. 내 근처에 있지마."

소화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불이 올라와서 집이 탈 수 있어.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돼"

(2000년 9월 20일)

이 동화전달에서 유아의 언어는 화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 불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지식이 서로 논리적인 연계를 가지고 유아의 마음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언어는 불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언어로서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유아의 이야기 전달에서는 유아가 화재를 나게 하는 상황의 눈에 보이는 원인과 결과보다는 화재를 나게 든 수다쟁이 참새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어 유아의 언어적 매개체가 유아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목 : 수다쟁이 참새와 119 구조대

백민경

수다쟁이 참새가 나무에서 심심해서 날아다니며 신기할 걸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나무 옆에 이상한 것이 있네.

수다쟁이 참새는 그걸 주위다가 보물창고에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경민이 생각: 수다쟁이 참새가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무언지도 모르면서 아무거나 만지니까! (9월 29일 동화전달)

또한 그림꾸미기는 그림이란 상징적 언어와 유아의 발화라는 언어적 매개체가 이용된 활동으로서 유아의 불에 대한 이해를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아가 집과 불꽃이라는 외적 매개체를 이용하여 불이 어떻게 났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고 교사와 유아의 일대일 대화와 이야기 써주기 과정을 통해 다시금 그림의 내용이 명료화된다.

신한영

가스렌지에서 가스가 새서 라이트를 켜더니 불이 났어요.

등에 불이 붙어서 뛰어 다니고 있어요. 멈추고 엎드려서 땀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균이

해균이가 라이트로 장난쳐요.

신균이가 해균이가 불장난 치는 걸 보고, 엄마한테 데리고 갔어요.

"엄마, 해균이가 라이터로 불장난을 치요. 라이터는 높은 곳에 놓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한석정

집에서 석정이가 촛불 가지고 놀다가 던져 버려서 등에 불이 붙었어요.

임현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불꽃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집밖으로 도망갔어요. 산 속으로 멀리 도망가서 물을 먹었어요.

천은태

어떤 어른이 담배를 아무데나 버려서 사과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태은이가 어른한테 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먼저 버려 버렸어요.

송호채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소방서에 전화를 하고 있어요.

호채가 집 앞 나무 있는 곳에서 켜보고 싶어서 라이터로 장난치다가 불이 났어요.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는 불이 날 수 있는 가능한 원인과 상황을 설정하였고 유아
가 불을 잘못 사용하여 불이 날 수 있다는 상황까지 설정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그림과 이야
기는 유아가 불이 날 수 있는 가능한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불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나가고 있었다.

VI. 결론 및 논의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서 밝혔듯이 본 평가연구의 목적은 안전프로그램이 유아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보다는 어떠한 교수와 학습 방식이 유아의 화재안전에 대한 이해를 이끌었는
지를 이해하는데 있었다. 물론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면서 예상되었던 유아의 화재안
전지식이나 대피행동지식은 변화가 있었다.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이 좀더 구체화되고 그 원
인과 결과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비
교집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더욱 명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재안전지식의 변화보다는 무엇이 아동으로 하여금 변화하게 하였는지를
탐색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이야기나누기와 적절한 매개체의 활용에서 그
중요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초록반 이 교사의 이야기나누기는 유아에게 일방적으로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기
술을 전달하는 교사주도의 교수가 아니고,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고
유아와 교사가 공동의 이해에 도달하는 협의의 과정이었다. 이 협의과정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교사는 비계설정, 의미의 협의, 문화적 표상의 전달을 이용하였다. 유아의 이해수준
은 성인과 능력 있는 또래의 지도와 협력으로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
고, 공동의 이해에 도달하도록 교사와 유아, 유아와 유아간의 협의를 격려했다. 또한 교사
의 지도는 보이지 않는 구조화된 교육계획에서 이루어졌고, 보이지 않는 구조에 대한 유아
와의 상호이해를 만들어갔다. 이러한 공동의 이해과정 속에서 유아는 자신의 화재안전에 대
한 이해를 심화하고, 확장하여 구성하여갔다.

또한 교수매체라고 알려진 매개체를 활용한 활동은 유아의 집합적인 정신발달이 개인의
발달로 전환되어 가도록 하는 또는 집합적인 혹은 공동의 정신을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
다. 외적인 그리고 언어를 이용한 매개체의 활용은 유아의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을 능동적
으로 조정하고 재구성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유아는 화재안전에 대한 반응을 내
면화하여갔다.

화재안전프로그램의 평가연구에서 이 교사의 이야기나누기과정과 매개체활용은 이 프로
그램을 적용·활용하는 교사들에게 프로그램의 구성과정이 어떠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대리경험의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평가자는 대리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의 손에서 다시 재구성되
여야 한다. 유아와 교사, 그리고 학급이 모두 제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가 언급하였듯이 자신이 유아와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함
께 의미를 구성하고, 그 의미를 협력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좋은 이야기나누기가 전개되고
유아의 새로운 지식구성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문헌

- 곽은복(2000).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영희, 정미라, 배소연(1997).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 유아교육연구, 17(1), 23-44.
- 한국산업안전공단(1995). 안전보건교육 지도안 - 국민학교 교사용
- 홍용희(1998). Preschool 학급에서 대집단 시간 교수하기: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의 교사. 한국 유아교육학회 1998년도 연차학술대회. 유아교육에서의 질적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 홍용희(2000). 유아의 도덕적 갈등 상황에 대한 통의: 인간의 마음과 상황-내-공동존재에 대한 탐구 및 이해증진. 유아교육연구, 20(3), 145-174.
- Berk, L. & Winsler, A. (1995). 어린이들의 학습에 비계설정(Scaffolding): 비고츠키와 유아 교육. 홍영희(역), 서울:창지사.
- Bodrova, E&Leong, D. (1996). 정신의 도구: 비고츠키 유아교육. 김억환, 박은혜(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Bruner, J. & Haste, H. (1987). Kntroduction. In J. Bruner & H. Haste (Eds.), Making sense: The child's construction of reality(pp. 1-25). New York: Mehuen.
- Donaldson, M. (1978). Children's minds. Newbury, CA: Sage.
- Graue, B. & Walsh, D. (1998). Children in social context. Newbury Park, CA: Sage.
- Shadish, W., Cook, T., & Leviton, L. (1991). Foundations of program evalution. Newbury Park, CA: Sage.
- Vygotsky, L.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pre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좋은 그림책 소개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진 실 · 인천, 샘터어린이집

조은수 글/문승연 꾸밈/길벗어린이/34쪽/7,000원

생 동감 넘치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꼭 펴고 아이들과 바깥나들이를 나가보세요.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나는 박물관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저희 어린이집에서 '박물관 나들이'와 '미술 감상 활동'을 진행하면서 보았던 그림책, '내가 처음 가 본 박물관 시리즈' 중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사인 저에게도 옛 그림을 보는 즐거움을 느끼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던 책이지요.

우리 아이들은 피카소와 김홍도 가운데 누구를 더 잘 알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것보다는 남의 것에 더 익숙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옛그림 속에는 우리 땅과 하늘이 지닌 은은한 색감, 우리 동물과 식물이 지닌 아기자기함, 그리고 우리 겨레의 고유한 심성이 배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 옛그림 가운데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작품들과 재미난 옛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친숙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자기가 눈 똥은 땅에 묻고 오줌은 집 밖에서 누고 돌아오는 고양이, 옛날에 시계역할을 한 닭, 털에 가려 눈은 잘 안보이고 돼지고 까만 코가 특징인 귀신 쫓는 삼사리, 농사도 짓고 무거운 짐도 나르고 먼길도 같이 간 한 식구나 마찬가지였던 소, 꿈에 말을 보면 좋은 일 생기고, 꿈에 말을 타면 반가운 편지가 온다고 믿었던 말, 옛날부터 말 안 듣기로 유명한 특히 물 건너기를 아주 싫어한 당나귀, 달 속 계수나무 아래서 방아를 찧는 피쟁이 토끼,

어흥~ 무서워 벌벌 떠는 호랑이,

그리고 토끼 못지 않은 피보 원숭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이야기만 소개해 볼게요.

'어흥! 옛날에는 우리 나라 산골마다 호랑이가 나와서 사람들을 해치곤 했어.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다가 한 가지 꾀를 내었어. 바로 무서운 호랑이를 바보스런 호랑이로 바꿔 버린 거야. 그래서 옛날 이야기나 그림을 보면 어리숙한 호랑이가 아주 많이 나오지. 잘 찾아봐 여기엔 시골 할아버지 같은 인자한 얼굴, 바보 같은 얼굴, 웃는 얼굴, 가지가지야. 우리는 이렇게 바보스런 호랑이를 그리면서 호랑이에 대한 무서움을 잊었던 거지' 솔직히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옛 어른들의 재치와 익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각 작품에서 8가지의 호랑이 얼굴을 한 면에 모아놓고 자세히 보니 정말 표정들이 각각이네요.

이렇게 우리 옛그림-민화에서 동물 부분들만 모아서 따로 편집이 되어있고, 중간중간 작품전체를 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자칫 막연하고 생소하게 생각되어지는 우리 옛그림이 보면 볼수록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이야기하듯 편안한 대화체의 글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긴 문장에서는 글 대신 그림을 넣어주고, 글씨 크기의 변화가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 어느 시골 농부 집에 소와 닭과 개가 살고 있었어'하는 글에서 소, 닭, 개 그림을 글 대신 넣어주고 있어요.

어린 유아에게 한 번에 다 읽어주기에는 다소 벅찬 것 같기도 합니다. 따로따로 이어진 이야기니 대상연령에 따라 적절하게 보여주세요. 옛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이야기에 얽매일 필요 없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 스스로 상상하며 이야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마지막 '그림 찾아보기'에서는 작품의 이름, 작가, 있는 곳에 대한 보충설명이 나와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을 통해 김홍도와 정선 같은 위대한 우리 화가들에 대해 알게 되고, 서양의 화려한 색채와는 다른 우리만의 형태와 색채가 지닌 독특한 아름다움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의 반란

이정미 · 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한달 전쯤 튼튼이반 막내가 들어왔답니다. 돌이 지난 지 석달이 다 되도록 아직 걸음마를 하지 못하지만 아주 아주 튼실하고 잘생긴 사내 아이 이름은 양지성.

누구나 그렇듯 첫날은 멍멍하고 대충 잘 지내다가 다음날 또 다음날 엄마 아빠와 헤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새로운 친구, 잘 모르는 어른들-선생님, 어수선하고 아직은 익숙하지 않는 낯선 분위기 등에 울어도 보고, 땀방도 부려보게 되죠.

튼튼이반에 이미 터줏대감이 된 다른 친구들은 뽀뽀 기어다니는 지성이를 보며 흉내내어 보기도 하고, 지성이 주위를 맴돌면서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관찰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쌓이면서, 지성이라도 어엿한 튼튼이반 친구가 되어갈 무렵, 다른 친구들의 심술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새 친구가 생기면 선생님들의 관심이 그리로 쏠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고 있으면 "예쁘다"도 해주고 "사랑해"도 해주던 녀석들이 틈틈이 꼬집기도 하고 꿀밤을 먹여주기도 하지요.

안타깝게 우리 지성이라도 어울려서 함께 지내는 과정에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었답니다.

튼튼이반 친구 중에 아직 형제가 없는 세은이는 지성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만큼 지성이를 놀리는 일도 자주 있었죠.

하루는 "아가? 아가 예뻐, 아가 뽀뽀!"해가며, 놀이실에 마주앉아 부둥켜안고 한참을 놀더니 급기야는 너무 세게 예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때 같으면 "으앙~"하고 울고 있는 지성이가 난데없이 반란을 시작했죠. 온 몸을 부르르 떨며 있는 힘을 다해...

드디어 전세는 역전이 되어 세은이는 울고 선생님들의 개입으로 진정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이가 세은이 옆에 다가오기만 해도 세은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선생님 등뒤로 숨느라 정신이 없고 더 이상 지성이를 세게 예뻐하는 튼튼이반 친구는 없게 되었죠.

한달 전 뽀뽀 기어다니던 지성이는 이제 제법 걸음마가 능숙해 졌답니다. 너무 급하면 걷는 걸 잊어버리지만요, 그리고 튼튼이반 친구들 대열에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적응해 주는 지성이가 선생님들은 마냥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고들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소망합니다.

평동어린이집 이야기

윤금주 · 수원, 평동어린이집

01 뽕주에게 여뽕생이 생겼다.

뽕주: 선생님, 나 오빠지요?

교사: 음~

뽕주: 그럼 미정이는요?

교사: 미정이는 너한테 누나야, 누나.

뽕주: 오늘도 눈왔는데.

교사: ???

02 뽕뽕 그림책을 보는 도중 고양이랑 보고 갑자기 흥분한 윤화(4세)

윤화: 토끼다!

교사: 야옹 야옹 하는데..

윤화: 야옹 야옹(울면서 토끼처럼 폴짝 폴짝 뛰다.)

옆에서 함께 보던 뽕주

뽕주: 야, 토끼랑 고양이랑 똑같다.

03 어진(3세)가 공을 가져와서

어진: 선생님, 이거 공 이에요?

교사: 이건 공이야

어진: 이건 공 이에요?

교사:

어진은 지금도 공이다.

04 어진이 바구니를 뽕주가 그냥 빼앗은 모양이다.

교사: 뽕주야, 어진한테 미안해 해줘야지

손만 가져다 팔을 쓸어주며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는데.

교사: 뽕주야, 말로 미안해 해줘야지.

뽕주: 말로 미안해!

교사:

다시 일을 시작하며....

김연숙 · 서울, 씹씹어린이집

지난 1년간 육아일기를 담당해 주셨던 김연숙 선생님이 다시 복직을 하며 이번 호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번 호부터는 전 평동어린이집 교사였던 수원지회의 전경숙 선생님이 연재를 맡아주셨습니다.

그 동안 좋은 글 보내주신 연숙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숙 선생님께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세월 참 빠르다. 아니, 지난 세월이 낯설기까지 하다. 사진과 육아일기로만 남아있는 나현이의 17개월 동안의 모습은 정말로 기억조차 희미하다. 더군다나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기에도 더욱 그렇다. 소리치르고 빠치고, 끝내고 하는 너무나도 적극적인, 아니 과격한 감정표현을 보면서 비로소 내 딸은 내 딸이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호기심 많고 부산하고 상당히(?) 독립적인, 다소 건방지기까지 한 나의 딸은 이제 어느덧 어린이집에 다닐 때가 되었다.

우리 새끼는 진짜 효녀다. 때어놓을 때가 되니까 엄마 맘 아프지 말라고 극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내가 직장엘 나가지 않더라도 이제는 시설에 보낼 때가 된 것 같다. 낯가림도 전혀 없고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 아무나 보고 친한 척하고 반가워한다. 놀이도 열기척(?)이다. 카세트틀 꺼내다 손수 코드까지 쫓고(다리미, 휴대전화기, 드라이기 할 것 없이 코드는 모두 갖다 쫓는다) EJECT를 눌러 열고는 온갖 조그만 물건을 심지어 우유까지 집어넣는다. 애기 때부터 잘하던 거꾸로 세상보기도 이제는 손도 짚지 않고 머리로만 버티고 팔은 움직인다. 목이 꺾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조심성은 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는다. 그리고 뭐든 작은 틈만 보면 온통 쑤셔 넣는다. 특히 이쑤시개, 동전을 좋아하고 물은 물론 최상의 놀이감이다. 기특하게 팔까지 건어 부치고 뿌리고 비비고 헤엄까지..... 게다가 뜰레 하나면 핑거페인팅을 한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의 시간을 허냈다. 그야말로 신나는 스트레스 해소였다. 난 요즘 나현이를 보면서 나의 인격이 매우 훌륭해짐을 느낀다. 아기가 있어도 집안을 깨끗하게 해 놓고 살 것이라는 17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벽과 방바닥은 물론 이불, 옷까지 온통 낙서 투성이다. 심지어는 새로 산 내 가방에 해 놓은 낙서를 보고도 잠시 멍했었다. 한마디로 도를 닦고 있는 거다. 밖에 나가면 유명인사와 닮았다. 모든 사람들과 악수하고 친한

평동어린이집 이야기 ...마침표를 찍을 때...

척하고 은행에 가면 외레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자기 집처럼 수다를 떨고 돌아다닌다.

요즘엔 "이게 뭐야?"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아무한테나 손가락질하면서 이게 뭐야를 집요하게 외쳐댄다. 이젠 아예 자기 혼자 묻고 대답하고를 다 한다. 웃기는 건 바로 말투다. 아주 방정맞고 코믹한 투의 그 말에 보는 사람들마다 한 마디씩 하게 된다. 사실 그건 나현이가 사고 쳤을 때 내가 하는 말투다. 노력하는 자세도 가상하다. 말을 하나 배우면 혼자 부단히 연습한다. [오빠]가 [아빠]랑 구분이 잘 안 되었었는데 며칠동안 혼자 중얼중얼 연습하더니 이제는 아주 신나서 오빠들만 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오빠!오빠!를 외쳐댄다. 그렇지만 언니와 오빠를 구분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 아주 한참동안 생각하고 살펴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 딸은 벌써부터 그렇게 뭐든 열심히 하는데 엄마는 왜 이리 게으른지..... 나현이를 보면 혼자 어찌 저리도 바쁠 수가 있을까...경이롭기까지 하다. 온통 다 신기하고 재미있나 보다. 그리고 간섭하는 걸 무척 싫어한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마음이 아주 가볍다. 하루 빨리 이 감금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고 싶을 뿐이다. 저나 나나..... 얼마 전 나현이가 다닐 어린이집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그래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대부분 만족스러웠는데 일과구성 부분에서 4시 이후부터 집에 갈 때까지는 TV를 본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말씀이 큰 아이들은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보게 하고 영아들은 좀 돌아다닌다고 했다. 후... 어린이집을 나서면서부터 마음이 무거웠다. 나현이가 걱정되어서가 아니었다. 나도 교사인데 그 현실을 왜 모르랴 그러나 과연 그 방법밖에는 없나.....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교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아동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일과 후 교사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건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최소한 구립 어린이집 정도까지라도 말이다.

머리가 복잡하다. 욕심은 많고 현실은 멀다.

새롭게 다시 일을 시작하며 난 뭘 하고 싶은 건가? 앞으로 날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나현이도 나도 이제부터 보다 넓은 삶으로 발을 내딛는다. 내 삶이 건강해야 나현이의 삶도 건강할 수 있을 거다. 이제부터의 내 삶에 있어 나현이가 가장 소중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내 삶의 전부가 나현이는 될 수 없기에 나중에, 나중에 난 나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육아일기 2

백수엄마를 자청하며

전경숙 · 경기, 회원

소연이(큰딸, 6세)와 아빠를 내보내고 늦게 일어난 소정이가(작은딸, 4세) 밥 먹이고 치우고 설거지하는데 소정이가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뒷베란다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온다. 자세히 보니 마늘을 하나씩 꺼내와서는 까고 또 가져와서는 까고를 반복한다. 그러면서 뭐가 신이 나는지 엄마, 엄마 하면서 마늘을 내민다. 그래 오늘은 소정이가 마늘을 까서 마늘 장아찌도 담그고 갈아서 냉동실에 얼려 놓아야겠다. 작은 상을 앞에 두고 소정이가 마주 앉아서 마늘을 까는데 소정이의 마늘 까는 그 고사리 같은 손이 눈에 들어온다. 너무 귀엽다. '눈과 손의 협응력, 소근육 발달...' 잠시 보육교사 입장이 되어서 마늘 깔 때의 효과에 대해서 떠올리는 내가 우습다

소정이에겐 이런 편안한 모습이 있었는가?

쉬는 두 주 동안은 아빠와 언니가 나가고 나면 설거지도 못하게 안으라고 때를 써서 울다가 안아주면 젖병 찾고 품에서 몇 시간을 또 자는 소정이가. 늦잠 자고 또 잠이 올까 싶은데 두 주 동안은 늦잠 자고, 낮잠 두 번 자고, 밤잠 또 자는 소정이가. 미인은 잠꾸러기라는데 얼마나 이뻐지려구.....

사실 나도 무력감에 빠져 두 주 동안은 품에 안고 자다가 TV보다 하면서 보냈다. 하루종일 문밖도 안나가고, 쓰레기 버리려고 반찬 사러도 안가고 겨우 저녁에 하원하는 소연이만 데리고 들어올 정도로 두문불출하고 지냈었다.

이모가 와도 엄마가 자기 때어놓고 어디가나 불안해하고, 밥은 배가 똥똥해도 세 그릇을 먹어야 숟가락을 놓는 소정이가.. 소정이나 나나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 집이란 공간에 하루종일 있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에 두 주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

마늘 반 자루를 까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든다. 소정이는 마늘 까는 데 흥미를 잃었는지 소꿉놀이를 바구니에 담아와서는 자기가 깐 마늘을 이리저리 옮겨본다. 아직도 힘들어하는 것은 많이 있다. 아직도 아토피 때문에 얼굴이나 몸은 벌겋고 바지에 종종 오줌을 싸는 소정이가. 오줌 묻은 허벅지를 긁어서 딱지가 제대로 붙어 있을 겨를이 없다. 변기에서 쉬하고 일어나면 굼어서 허물이 사방에 떨어져있다. 자다가도 두 세시 쯤 되면 간지러운지 뼉뼉 긁다가 피나고 아파서 울다가 잠이 든다. 지금도 그러기는 하는데 전에와는 달리 내일 출근 안

하니까 늦잠 자지 뭐 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일어난다. 한 한시간 정도 놀아주면 편안하게 다시 잠이 드니까.... 그전에 어찌 일어났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집에서 쉬니까 소정이 보다 내가 더 많이 변했다. 많이 느긋해졌다. 소정이를 바라볼 때도, 집안 일을 할 때도.

휴식을 하고 첫 두 주는 어린이집 생활이 몸에 배어 그것에 맞추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하려했는데 소정이 리듬하고 맞지 않았다. 그래 소정이한테 맞추자. 소정이를 위해서 쉬는데.... 소정이 먹고 싶을 때 차려주고 자고 싶을 때 재우고 책 가져오면 읽어 주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덜 굶고 덜 먹고 집에 내가 어디에 있어도 놀이감이 있는 방에 가서 잘 논다. 내가 소정이를 여유롭게 대하니까 소정이라도 안정감을 느끼나보다.

소정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았다. 먹을 것도 소정이를 위한 특별요리도 자주 해주고, 풍욕, 족욕목욕, 마사지,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했는데 하나도 지키질 못했다. 엄마의 게으름의 끝은 어디인가.. 그래도 소정이는 좋아지고 있다. 역시 심리적인 것이 제일 큰가보다. 아무 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데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니...

그래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자. 엄마는 얼마나 행복 한데...

한번쯤은 이렇게 무작정 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백수 생활을 즐기자.

소정아 엄마랑 있는 동안 네 아픈 곳 다 나았으면 좋겠구나.

P.S. 우리 소정이는 아토피가 심해요. 온몸에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지고, 진물도 잘 나는 편이에요.

알레르기도 심해요. 계란 흰자, 노른자는 너무 심해서 잘못해서 먹이면 쇼크가 일어날지도 모른대요. 밀가루, 우유, 대구, 콩 거기다가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까지.. 이렇게 골고루 다 나타나는 아이는 드물대요. 양약 처방, 한약 처방 다해봤는데 쉽게 낫지는 않더군요. 지금은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하려하는데 더더군요. 요즘도 밤마다 일어나 긁어서 피를 봐야 잠이 들어요. 소정이가 긁지 않고 편안히 잠이 들어 밤잠 설치지 않는 그날이 백수 생활이 끝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네 아이들에서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왜곡의 역사/ 진실의 역사

박상희 · 회원

요새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만"바람이 불고 있다.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이다. 4.7%가 실직자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 할 곳이 없다. 그래도 이런 것은 낫다. 자국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국제적인 눈치만 보고 단 한번도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하다. 하기에 '한국인'은 국가라는 거대한 백그라운드가 한번도 존재해본 적이 없었고, 오로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 힘든 세상을 헤쳐 나가야 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속을 가장 많이 뒤집어 놓았던 국가가 바로 이웃의 일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국가였고 현재는 전 세계의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강대국이고 우리 역시 그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들은 그들에게서 받아내야만 할 것들이 많다. 그 대가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해도, 아주 많은 또 다른 대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해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그것은 알게 모르게 사회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과 절대적인 부정감에서 오는 또 다른 정신적, 문화적 일제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적 국가와 민족이 되기 위한 가장 큰 현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런 꼬투리가 하나 생겼다. 현재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역사왜곡"이 그것이다.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대륙침략을 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전략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일본 역사교과서가 부분 수정만을 요구받고 검정과정을 통과한 사실이다. 거기다 다시금 독도가 일본 땅인 것은 국제적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실임으로 반환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끔 일본인들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대목이다. 전면적이지 않지만 지속적이고, 잊혀진 듯 하다가 다시금 시작하는 모습. 결국 그들은 한번도 그러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한번 가졌던 것을 다시는 놓지 않으려는 집요함. 본인들은 흥분하지 않지만 남을 흥분시키는 묘한 심리적 우월감. 언제나 우리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취급되어 왔다. 이번의 교과서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우리들의 대처 방법이 이전보다 조금은 다른 듯 하다. 내정간섭이라는 명목으로 단 한번도 제대로 반응한번 보이지 못한 정부가 총리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갖고 일본정부

에 직접 항의하는가하면, 일본 대사를 불러 면전에서 항의를 하기도 했다. 김 대통령은 3.1절 연설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유감의 표시를 나타내기도 했다. 물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항의시위도 있었고, 중국과 연대로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도 한다고 한다. 감정적으로 보자면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우리 정부가 자국과 자국민의 이해관계에 낮은 수위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예전과 분명 다른 모습이다.

더욱 대견한 것은 초등학교생들이 모여 정신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으로 정신대문제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아직은 어리지만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직접 느껴보고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과 나누려는 자세가 기성세대들을 부끄럽게 했다. 그 초등학교생들이 아직은 승리한 자들에 의해 때로는 조작되어지는 역사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지라도 역사의 진실에 접근하려는 모습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조금씩 정부가 정부 구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과 국가를 진정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서는 지켜지길 바라며 견제하고 감독하는 자세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놀자! 놀자! 놀자!

보육교사 수다방

편 집 부

요즘 유아교육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얘기들이 많은데 선생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육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이야기 해 봅시다.

통강이씨 >> 대개 보통 사람들은 어린이집을 유치원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놀려 놓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저소득층의 맛벌이 부부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는데 이제는 그 기능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

원소 >> 사회적으로 보육에 대해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보육의 모습은 어떠한지....? 음, 요즘 나의 심정은 그래. 처음 우리가 출발했을 때 보호와 교육이라는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면서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안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 그런 걸 깨고 싶었어. 나 역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싶었어. 그래서 부모들의 의식을 바꾸려는 교육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기본이고 거기에 정말 부모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아. 월1회 부모교육과 개별적인 만남으로 친해지고 그런 것을 통해 어린이집의 교육이념, 목적 등을 같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움직이려고 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 예를 들어 부모들이 첫째보다 둘째를 편하게 키운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건 부모들이 게을러졌다는 얘기가. 물론 처음 태어나서부터 아이를 바라보는 입장이 부모마다 다르지만 처음에는 아이가 모든 것이잖아. 근데 아이가 커 가면서 조금씩 아이에 대한 배려도

줄어들고 이해도 줄어들고 '넌 이제 다 컸어' 라며 너무 빨리 아이들한테 컸다라는 얘기를 해. 그래서 아이의 권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되색해 가는 것 같아. 그러다보니 아이가 크면 클수록 부모들이 무관심해지는 걸 느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부모들과 뭘 해도 해도 안 되는 걸까 하는 의심도 들고....

동강이지>> 자기는 '보육'이라는 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데?

왕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정말 오늘 우리 여성대회에서 본 것처럼 평등사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모들과 아이들의 교육을 얘기하고 같이 키우는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고 내 노후 생활도 우리 아이들한테 달려있고 후, 후.... 크게 이상을 생각했는데 하다가 자꾸 부딪혀. 요즘은 좀 기운이 빠져.

동강이지>> 왕소가 생각하고 있는 건 굳이 어린이집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 아니냐?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있는 기관이면 어디나 그런 생각들을 할 거라고. 그럼 실제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포비>> 어린이집이 다른 기관과 다른 건 우선 아이들이 영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오는 곳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게 하는 거야. 부모가 일하러 가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해야 돼. 나 어릴 때 만해도 달았어. 내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래도 많고 문 밖에 나가면 놀 친구가 있구 그랬어. 그래서 또래끼리 지내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양보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돼. 내가 아무리 떼를 써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걸 서서히 배우게 되는 것 같이 놀면서.

왕소>> 전에는 집 밖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모들이 돈을 내고 놀게 하잖아. 그리고 부모들은 이왕 돈을 내면 뭔가를 가르쳐 주길 원해 놀이보다는. 그러니 부모와 교사 사이에 갭이 생겨나. 20세기에서 21세기로 변하면서 부모들도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아. 뭔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포비>> 매스컴의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 매스컴이나 광고 등에서 조기 영어 교육 등을 알려내니까 부모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나 보육교사회의 역할이 중요해.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

를 바꿔야 해. 보육교사회나 여성 단체들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 등을 함께 이야기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해. 왜, 뭐로 실험 많이 하잖아. 우리 애들을 그렇게 실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등을 통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좀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해. 말로는 아무리 해도 돌아서면 다시 글자 가르치고 싶고, 숫자 가르치고 싶어한다고.

이슬>>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을 보면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저쪽 집에서 애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면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야. 욕심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 집에 한 아이는 이제 6살 되는 아이인데 엄마가 욕심이 좀 많아서 어린이집에 오면서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1주일에 한 번씩 학습지도 해. 아이가 8시 좀 넘어서 어린이집에 왔다가 1시쯤 피아노 학원에 가서 2시 좀 넘으면 다시 어린이집에 와. 그렇게 왔다갔다하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애가 오후에는 짜증을 잘 내. 그래서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낮잠 자기 싫어해서 피아노를 보낸대. 근데 아이는 낮잠을 안 자면 피곤해서 막 짜증을 내고 아이들하고 놀 때도 신경질적이 되는 거야. 아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 제대로 쉬는 시간이 없으니.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잘 안 통해. 그래서 부모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아이들을 잘 파악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포비>> 요즘 교육기관들이 많고 요즘은 초등학교도 열린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난 자라면서 10년이 넘게 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도 그 학교교육에서 내가 뭘 잘 할 수 있는지 알려준 교사도 없었고 그런 교육도 받아보지 못한 거 같아. 그래서 20살 넘어서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 굉장히 당혹스럽고 하고 싶은 건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나이인데 정작 내가 뭘 잘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개발해 주고, 어릴 때만이라도 정말정말 하기 싫은 것은 안 해도 이해되는 환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슬>> 부모들이 아이들의 카 가는 과정에 대해 잘 모른다면 교육시킬 필요가 있어. 4,5세의 아이들에게 암기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그 때 뿐이야. 우리 집 아이도 보면 글도 잘 모르고 그러더니 6살 좀 넘으면서 지나다니며 글자 같이 생긴 것들에 대해 물어봐. 그럼 그 시기가 그 아이에게는 문자교육이 필요한 시기인 거야. 그 아이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혼

자 글자를 읽게 됐어. 그런 사례들을 알려주며 부모 교육을 해야돼. 남들하는 것 따라하는 게 좋은 부모는 아니잖아?

동강00>>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그 요구에 맞춰 어린이집이 생겨났는데 부모들이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것들을 시설에 위임하거나 요구해. 그리고 그런 요구가 맞지 않으면 다른 기관을 찾고 또 다른 기관을 찾으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부모들이 실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되는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요즘 사회 모습인 것 같아.

이슬>> 시설 선택을 할 때에도 시설 규모나 외형에 너무 치중을 두고 있어. 일단 부모들이 원하는 시설은 크고 뭐든지 많이 가르쳐야 하고 그런 시설을 좋아하는데 오히려 무엇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곳보다 그 아이에 맞게 적절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해. 아이들의 공부는 놀이이고 아이들끼리 놀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 나라는 인지학습을 너무 중요시 여겨.

동강00>> 아이들이 놀 권리를 뺏겨 버린 거지.

포비>> 우리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충분히 주는데 아이들이 없어. 부모가 안 보내는 거야. 이상과 현실의 괴리지.

동강00>> 부모들이 보기에는 별로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아이들을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아무생각 없이 노는 게 아니라, 단지 하루 종일 풀어놓는 게 아니잖아. 자기의 생각들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끼리를 제공해야 되고 또 그 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들도 제공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

이슬>> 우리 집 부모들을 보면 다 일하고 바빠서 제대로 신경 써 줄 수 없으니까 계속 외부에서 누군가가 교육해 주기를 원하는지도 몰라.

동강00>> 지금 주로 되는 얘기가 어린이집에서 어렸든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제대로 놀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한테 뭐가 제일 중요해?

포비>> 같이 놀아줄 교사가 필요하지.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교사. 근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면 교사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가 와서 이야기해도 그냥 '응~'하고 대꾸하고 말거나 누가 이끄러라도 하면 '가서 그러지 말라고 해~' 하며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 교사가 아이들과 집중해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 외에 벌여

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 또 교사들이 충분히 휴식을 갖지 못하니까 아이들에 대한 반응이 늦어지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제 때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어쨌든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같이 집중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교사라는 생각이 들어.

동강00>> 나도 그런 생각해. 이번 총회에 전시된 등구미로 만든 역할 놀이 세트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집에 가서 만들었어. 조카를 옆에 두고 만드는 과정도 보여 줬는데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 지 반응이 시큰둥해. 그러다가 내가 그 놀잇감을 갖고 노는 모습을 보여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너무 좋아하고 그 장난감을 갖고 오래 잘 노는 거야. 그리고 가위도 찢으면 위험 하다고 안 줬는데 지금은 가위와 종이만 주면 그냥 내리 줄겁게 노는 거야. 바로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놀잇감만 던져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반응해 주고 호응하고 조금만 안내를 해줘도 아이가 장말 즐겁게 놀이에 몰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왕소>> 교사한테 제일 필요한 건 여유야. 매일매일 일과 끝나고 다음 날을 준비하고 간다는 건 너무 힘들어. 지금의 조건에서는.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애정표현인 것 같아. 교사가 자기를 얼마만큼 좋아하는지를 수시로 느낄 수 있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좋고 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안다고 생각해. 아이한테 어린이집은 애정 표현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긍정감이 생기고 놀이도 즐겁게 할 수 있어. 교사한테는 잡무 다 없애고 하루 종일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어.

포비>> 우리도 사무 업무는 다른 사람이 보고 교사는 교사대로 아이들과 지내고... 근데 이게 현실화되려면 정부에서 인력지원이 나와야 돼. 민간에게만 그 역할을 담당하라는 것은 무리지. 사회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해. 정부에서 제대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뜻있고 맘있는 사람한테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말도 안돼. 그리고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놀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 거야. 그러나 사회적으로 다 인지학습을 중요시 여기니까 자기 아이만 혼자 놀게 하기에는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회에서 같이 얘기하고 풀어가야 하는 거야. 요즘 언론에서도 유아교육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있는데 이럴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지.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서 사회화되지 않고는 의미가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가 새단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에 꿈에도 그리던 회원방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화면도 사악~ 바뀌었습니다. 보육교사들에게 보다 많은,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보육뉴스 코너도 신설했구요. 보육정책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곰곰이와 토론 마당, 사이버 설문조사 란도 새로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부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지부 게시판도 만들었습니다. 모두 어서 어서 놀러 오세요.

아래에는 새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방법을 소개하니 회원 여러분은 빨리 메일주소 신청을 하세요.

새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 안내 - 정회원, 준회원용

정회원, 준회원이 이용할 때 유의 사항

본회 정회원, 준회원인 경우 모든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목소리 (회원 목소리는 전국의 회원들의 이야기 공간이며 다른 지부 회원방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회원 목소리 이용 방법

1. 새 아이디 만들기

중앙이나 지부의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신청해서 새 아이디 주소를 만듭니다. 모든 메일 주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jinbo.net 이어야 회원 목소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kdt@chollan.net가 즐겨 쓰는 메일 주소인 경우 kdt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시면 또는 kdt만 알려주시면 신청해 드립니다. 단, 아이디는 영문으로 4-8자만 가능합니다.

2. 로그인 하기

회원 목소리를 클릭하면 로그인 하라는 창이 뜹니다. 그 곳에 신청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세요. 만일 아이디만 신청하신 회원은 중앙에 전화해서서 비밀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kdt@jinbo.net가 새로 받은 메일 주소인 경우 kdt와 비밀번호를 치면 됩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혼자서만 떠들면 결국 혼자 지칠 수밖에 없어. 사회 문제로 관심 갖도록 해야지.

결혼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치만 부모는 누구나 되어서는 안돼. 부모도 될 사람은 미리 교육받고 준비해야 돼.

모두>> 맞아 맞아.

동강00>> 어썬 우린 다 그런 생각을 하네. 진짜 낳는다고 다 부모가 아니야. 그나마 옛날에는 낳아 놓으면 산이 키워주고 강이 키워주고 이웃이 같이 키워주고 그야말로 자연이 인간을 만들어 줬는데 요즘은 집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너무 위험해서 보호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성인의 책임이 더 중요해졌구.

포비>> 옛날에는 동네 안에서 모든 문화가 형성되고 또 그 안에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살았는데 요즘은 너무 다양한 문화들이 쏟아지고 아이들이 받는 것도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어른들의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해. 옛날에는 방목(?) 해도 위험이 적었는데 요즘은 아니잖아. 근데 오히려 요즘이 제대로 된 교육이 안돼.

이슬>> 어썬든 요즘 아이들은 부모보다는 교사와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 교사가 아이 하나하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대해줘야 한대구. 그러려면 교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더 키워야 하는 거구. 교사가 완전한 인간상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노력해야지.

동강00>> 난 교사는 놀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도시에서만 자라서들로 산으로 아이들과 가면 내가 먼저 뭘 해야 할 지 몰라서 주눅이 들 때가 있어. 그러다 아이들이 놀기 시작하면 난 자연스럽게 관찰자가 되는 거야.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 욕구는 아이들과 놀면서 공감대를 갖는 거거든. 추억도 만들고. 근데 그게 아직 몸으로 체화되지 않았나 봐. 그래서 이제라도 나 스스로 찾아다니며 체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포비>> 그러니까 보육교사회에서 그런 기회를 보육교사들에게 제공해야 해. 실제 생활하다보면 관성화되기 쉽잖아. 그러니까 보육교사회에서 자극을 주었으면 좋겠어.

.....
3.8여성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술 한잔 앞에 놓고 참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간 저녁이었다. 약속된 영화보기 시간이 되어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이 밤 저마다 돌아가는 길에는 내일 아이들과 어떻게 놀까를 궁리하고 있을 거다.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겨울이 가고 아이들에게 바깥놀이가 시작되는 봄이 되었습니다. 방안에 모여 분주하게 놀던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도 마음이 바빠지는 3월, 다양한 주제와 관심으로 1년을 계획하는 선생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로부터 맡겨진 아이를 보살피고 가르치는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 말고도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개인위생과 환기시키고 난방하고 청소하는 일들이 일상의 일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조금은 덜 배우더라도 아프지 않도록 돌보는 일은 표시나지 않지만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올해 계획하고 계신 건강관련 program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한국보육교사회 등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맡겨질 아이들의 1년 동안의 건강관리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전문지식은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개인 위생과 식생활, 주거양식이나 생활 습관은 아이들의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린이집에서 활용하고있는 민간요법들은 유용한 것인지?
사고나 질병에 접했을 때 누구와 상담하고 치료받을 것인지?
수두나, 유행성 이하선염 같은 남에게 옮기는 질병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들과 어떤 협력을 하는 것이 좋은지?
사고로 인한 부모님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수많은 건강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하는 등등의 일들은 어린이집의 건강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은 작지만 kdta@chollian.net (Q & A)으로 모여주시고, 함께 정보를 나누고 계획을 하는데 참여하시고 싶은 선생님은 한국보육교사회에 연락해주시고, 매 월 작은 모임을 통해 즐거운 교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지역의 어린이집부터 관심이 있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보육교사들이 참여하여 어린이집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건강관리program을 만들어 적용하는 노력이 2001년 한해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연구모임 사전지원 공모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지부, 지회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모임 사전지원 공모'를 실시합니다.

신청자격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된 소모임

신청서 양식 본회 홈페이지(www.kdta.or.kr)로 오셔서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세요.

신청마감일 2001년 3월 25일

당선자 발표 3월 31일

문의 02-2275-8505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 교사교육강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꼭 나만했을 때 놀면서 불렀던 노래와 놀이 배워보세"

일시: 2001년 4월 4일(수) ~ 6월 27일(수) 총 12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풍물 공간 더듬 (동암역 북광장 5분 거리)

참가비: 10만원 (본회 정회원은 30% 할인)

교육내용: 아이 재우는 소리

아이 어르는 소리

전래 동요

전래 놀이

강강술래

장단 놀이

악기 다루기

신청 방법: 선착순 20명이며 아래로 입금 후 연락 해
주십시오. (011-9030-4188)

농협 146-12-203101 고정미

주최: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 보육교사 풍물패 "매나
리"

아이들과 함께 풍물을 이어가는 사람들 "풍물매비"

■ 진달래 농장 운영계획

· 봄: 파종, 모내기, 나무심기, 꽃씨심기

· 여름: 자연체험, 환경학교 개설

· 가을: 가을걷이잔치, 밤/배/포도따기,

벼베기, 농작물 직거래 등

· 겨울: 공동 김장 담그기, 전통 음식 공

동 만들기

· 민속공예품: 자연물 이용 구성물 만들

기(장승짜기, 가마자기, 흙집짓기, 원

두막짓기, 연못 만들기, 돌담쌓기 등

· 문화예술인과의 만남

· 이용안내

개인 5명 2만원, 교육기관 10명 1만

오천원

자연학습장 견학료 1인당 1,000원

문의: 031-317-3405 (www.famland.com.ne.kr)

[세미나] 발도르프 교육과 관련된 공개 강연회 및 세미나

다음과 같이 발도르프 교육과 관련된 공개
강연회 및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
랍니다.

이메일로 참석확인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
겠습니다.

■ 공개강연회(3.16 금 오후6시~7시30분)

* 강사: 프레아 아프케(Freya Afkhe)

- 발도르프 유아교사 경력30년

- 발도르프 사범대학 강사

- 발도르프킨더가르텐에서의 놀이와 작업의 저자

진달래 자연학교, 진달래 주말농장

■ 운영내용: 자연생태, 농촌체험, 전통문
화/역사, 전래놀이 체험

- 병곡후 학교: 초등학생, 주1회 지역별
진행

- 계절학교: 방학을 이용한 자연학교로
월악산 팜스테이, 안면도 갯벌, DMZ
평화생명마을, 정선 아우라지 기차여
행/폐탄광 체험 등

- 나눔 학교: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시
회복지시설 아이들과 공동 자연 체험

* 장소: 여의도 동양증권빌딩 대강당

- 대중교통 이용 바람

- 지하철6호선 여의도역 3번출구 나와서 1시방향에 위치

* 간단한 다과 및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 참가비는 없습니다.

* 안내 및 문의: 김부곤(02-3770-3862)

■ 제3차 서남 발도르프 유아교사 세미나

일 시: 2001년 3월17일(토)~18일(일)

장 소: 별나라어린이집(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주 제: 동화와 인형

소주제: 1) 동화의 의미와 어린이의 발달

2) 단순한 인형 만들기

3) 어린이의 손을 위한 줄인형(Marionette)

만들기

4) 교사가 해 주는 인형극을 위한 단순한 실크

줄인형 만들기

5) 줄인형극 사범공인한국 전래동화를 가지고

참가자가 직접 연습

강 사: 프레아 아프케(Freya Afkhe, 독일)

대 상: 한국슈타이너교육예술협회 교사교육과정 수강

자 우선(최대 40명)

접 수: 2001년 3월12일(월)까지

▷ 식비 및 재료비(1~2만원은 참가자 부담입니다.)

▷ 접수 및 문의

서남재단 사무국 김부곤

(02-3770-3862, brian@seonam.or.kr)

별나라어린이집 신정자

(02-364-6257, starkid@seonam.or.kr)

곡교 어린이집의 장난감 도서관

0세에서 3세의 영아들 위해 엄마와 함께
노는 놀이와 장난감이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돕는 '매력적
인 장난감'의 제공과 친구·가족과 함께
노는 재미있는 '함께놀이'가 있습니다.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가정과 부모에게 전
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를 해드립니다.

매력적인 장난감을 필요한 만큼 빌려드립
니다.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어린이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배우고 협력하는
만남의 장을 엽니다.

소식지를 통해 장난감 도서관의 즐거움과
재미를 전합니다.

대상: 0세~3세 영아와 가족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와 가족

연회비: 가족당 2만원

문의: 02-488-0041 (www.gokgyo.co.kr)

제4기 생태유아교육강좌

-21세기, 문명의 전환과 유아교육의 새로
운 방향-

연 제: 2001년 4월 14일 ~ 7월 15일(매주 토요일 오
후 3시~5시)

아디서: 부산대학교 보육종합센터내 1층 원경시청각실

주 최: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부산대
보육종합센터

대 상: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교사, 부모, 유아교육
에 관심있는 연구자 및 모든 분

참가비: 10만원(생태체험학습비는 별도부담)

참가신청은 아래 구좌로 참가비 입금후 담당
강사김혜은에게 전화로 확인

농협 948-01-113032 (임재택)

문 의: 전화: 051) 510-1586, 전송: 051) 516-0486

■ 강좌내용

1강좌 (4/14 토)

고병헌(성공회대 교양학부)

"21세기, 문명의 전환과 교육의 새로운 방향"

2강좌 (4/21 토)

임재해(안동대 민속학과)

"마을에서 더불어 살고 함께 자라는 아이들"

3강좌 (4/28 토)

이철국(고양교육협동조합 "아이땅우리

땅" 운영위원)

"강아지통 선생님의 생태교육 체험이야기"

4강좌 (5/12 토)

박석준(동일한의원)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5강좌 (5/26 토)

송재화(초암교육문화원)

"채집에 따른 아이들 이해"

6강좌 (6/2 토)

최영관(이대 교육과학연구소 대안교육

프로젝트 연구원)

"형견안형과 어린이의 세계"

7강좌 (6/9 토)

정승각(동화작가)

"오감 살리기: 얼굴을 그려보아요"

8강좌 (6/16 토)

일본 사쿠라 사쿠라노 어린이집의 생명친화적

유아교육

9강좌 (6/23 토)

편해문(옛이야기노래놀이꾼)

"어른들끼리 모여앉았 한번 놀아보는

혼자나 둘, 여럿이 안이나 밖에서 놀았던 옛 아이

들놀이, 판 판 판"

10강좌 (6/30 토)

김옥자(남산고등학교)

유치원사례발표 "자연과 함께 하는 과학교육"

11강좌 (7/7 토)

부산대학교 부설 어린이집

"노인·아동 상호작용프로그램과 세시풍속활동"

생태체험학습(7/14 토~ 7/15 일)

무주 생태마을

"생태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 세상"

중앙소식

- 1월5일 "보육발전기획단 전체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가하였습니다. 기획단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일정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윤경대표는 보육인력연구팀의 자문위원자격으로 참가하였습니다.
- 1월 7일 총회준비위 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1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1월8일~9일 "2001년도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에 본회에서는 이기원, 이윤경 공동대표가 대의원자격으로 참가하였습니다.
- 1월9일 본회 보육정책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 1월10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2001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위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본회에서는 이윤경공동대표가 참가하였습니다.
- 1월11일 - "국공립시설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본회에서는 이윤경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가하였습니다.
- 1월17일 - 보육발전기획단 보육인력팀 본과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자문위원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육교사자격제도와 처우, 보수교육과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1월26일 - 보육정보연구소와 2001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 1월 26~27일 서울 썬식어린이집에서 2001년 확대간부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2001년 지부를 책임질 지부 일꾼들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지부간의 네트워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1월30일 여연 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가하였습니다.
- 1월30일 본회 보육정책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 2월1일 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사무관과 이기원, 이윤경 공동대표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회의 법인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복지부는 허가를 내줄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2월 3 ~ 4일 제5차 정기 총회 및 2001년 겨울 수련회가 인천의 건설기술 교육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직전망 마련을 위한 조별 토의와 공동체 놀이, 지부 자랑의 자리가 마련되었고, 이튿날은 여성주의시각으로 바라보는 통일과 한국사회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2001년 사업 방향과 계획에 대해 공유하였고 신임지부장으로는 서울의 김진숙, 부산의 김명선, 광주전남의 이정미, 인천의 이인희, 대구의 홍미숙, 경기(준)의 강영신 선생님이 인준되었습니다.
- 2월6일 민주당 여성국에서 주최한 "여성단체장 초청 신년회"에 본회 이윤경 공동

-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성과 민주당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 2월7일 보육발전기획단 보육인력팀 2차 분과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1차에 이어 보육인력관계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2월7일 "건강한 보육환경 실천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건강보육연대) 6차회의가 있었습니다. 본회 이윤경 공동대표와 이경너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활동을 위한 일정과 내용준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2월8일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의 실무자와 이윤경 공동대표간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단체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 2월8일 <사단법인 한국안전생활교육회>의 윤선희부장과 본회 이윤경 공동대표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영유아시설의 안전교육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 2월9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비위에서 주최한 "2001년도 시민사회단체 공동 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에 본회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2월12일 "보육발전기획단 전체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분과별로 진행되었던 연구과제에

대한 1차 검토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2월13일 "건강보육연대 정책팀회의"가 있었습니다. 본회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작업이 있었습니다.
- 2월16일 "건강보육연대" 7차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2월23일 "보육발전기획단 전체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분과별 연구과제에 대한 2차 검토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2월 23일 경기지부(준)의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지부의 세부적인 상반기 계획과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2월 24일 홈페이지 운영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부의 홈페이지 운영자를 대상으로 진보네트워킹센터의 김지희 선생님을 강사로 우리 홈페이지 운영 전반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2월 26일부터는 새로운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2월26일 - 본회 보육정책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부소식

서울지부

- 1월 13일 서울지부 정기 총회가 있었습니다. 신임지부장에 김진숙, 사무국장에 황

호정, 교육부장에 안경자, 홍보부장에 김미나 등 새 임원진을 구성하였습니다.

- 2월 17일 청산교육장에서 '희망찬 2001년을 위한 하루찾잡'이 있었습니다. 지부의 재정마련을 위해 애쓴 회원 여러분과 이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전남지부

- 1, 2월은 시설에서 졸업식과 새학기 준비로 많이 바빴네요.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를 다시금 가다듬고 3, 4월을 활기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1년 사업 배치와 인준하지 못한 신입회원 인준을 위한 임시 총회가 있을 예정이고,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연구 소모임도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모임을 해체하고 전 회원의 1부서가임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것도 진행할 것입니다.

부산지부

- 1월 29일 연합토론평장에 참석해 부산지부의 사업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 2월 2일 부산지부 사무실 입주 신고식과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 2월 5일 교사 재교육으로 pet교육을 받았습니다.
- 2월 27일 보육정책 토론회에서 유아교육 법안과 유아학교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축하합니다.

- 서울 다우리어린이집의 이미옥 선생님이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 서울 새터 어린이집의 김옥희 선생님이 3월 4일 결혼합니다. 더불어 안식년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해 알찬 안식년을 보내시고 1년 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 부산의 김정현 선생님이 임신을 했습니다. 심하던 입덧이 많이 나아졌답니다. 맛있는 것 많이 먹고 건강한 아이 출산하세요.
- 공동대표인 서은희 선생님과 보육정보연구소 서정은 선생님이 2월에 무사히 논문 통과와 졸업을 하고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수원의 이지윤 선생님이 2월 21일에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 부산지부에 신입회원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정경자, 최미란, 문은혜, 이효진, 윤지애, 이수경, 신혜정, 강영희, 강현령, 강민정, 임말자, 박은숙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부산지부가 더욱 뽕뽕해 지겠군요.

- 서울의 김정옥, 최주연, 이보경 선생님이 새로 가입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휴직합니다.

- 서울 우리어린이집의 장명신 선생님이 1월에 어린이집을 그만 두고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부산의 안미경, 김경해 선생님이 2월에 어린이집을 그만 두고 요즘은 같이 놀 사 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는 분 연락 주세요.
- 수원의 전경숙 선생님이 2월에 휴직하셨습니다. 그러나 섭섭해 하지 마세요. 앞으로 육아 일기에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 서울 씩씩이어린이집의 주해민 선생님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진주로 내려갑니다. 보내는 마음은 아쉽지만 새로운 생활을 맞이할 선생님께 잘 살기를 기원합니다.

회비를 내셨습니다.

- <서울지부> - 2월 일부
- <부산지부> - 1월 완납
- <인천지부> - 1,2월 완납
- <광주전남지부> - 전년도 회비 완납
- <경기지부(준)> - 1월 일부
- <기타> 서은희 12만원, 김정옥 1만원, 김호연 1만원, 최순옥 11만원, 박정애 3만원, 고영미 5만원, 박부자 3만원
- <자료회원> 아이사랑, 김지선, 서울보육정

- 보센터, 양이만, 아기둥지놀이방, 김화정, 조미연, 이희정, 방연실

<후원해주셨습니다>

- 박정애 5만원, 정순옥 13만원
- <북한산모와 아동에게 내복보내기 후원해주셨습니다.>

- 조인숙, 유정은, 이해영, 박정임, 이순, 최화영, 현희정, 위준임, 권은희, 이숙희, 이은희, 최복순, 김동준, 손수정, 이상미, 이인희, 이은경, 이현주, 강영신, 이기원, 지연, 정연화, 전경숙, 윤금주, 박부자, 임미화, 구한걸

본외1·2월 활동일지

- 1월 4일 확대집행위
- 7일 3차 총준위
- 8-9 일 여연 총회
- 10일 건강보육연대 회의
- 16일 확대집행위
- 19일 경기지부(준) 회의
- 27-28일 확대간부연석회의
- 29일 건강보육연대회의
- 2월 3-4일 제5차 총회 및 수련회
- 14일 한국보육정보연구소와의 간담회
- 16일 건강보육연대회의
- 22일 확대집행위
- 24일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

- 3월 14일 3월 14일 확대집행위
- 3월 14일 3월 14일 확대집행위

편집부에서

3월입니다.

1년을 둘러보면 다른 계절은 소리없이 어느새 인가 쉽게 잘도 찾아오는데 봄은 참 어렵게 오는듯 합니다. 모래 바람에, 꽃샘 추위에, 일새 추위에...

올 봄은 더욱 만나기가 어렵군요. 이렇게 힘들게 찾아오는 계절이라 더 기다려지고 소중한가 봐요. 그래도 시인의 말처럼 봄은 오지요.

이 책이 여러분앞에 놓여 있을 때 봄이면 따뜻한 햇볕이 우리 아이들을 쬔어주고 있겠네요.

이번호 사이버 정보망은 편집부의 사정으로 1회 쉽니다.

1

-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분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6 / 전송 02-2275-850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e-mail:kdta@chollian.net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wawbest@jinbo.net